HANURI TOUR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우수대리점
한우리 여행사
전 세계 항공권 최저가 도매개별 맞춤 투어 전문
213.388.4141 1-855-388-4141
1001 S.Vermont Ave. #209, Los Angeles, CA 90006

기독일보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THURSDAY, April 20, 2017 Vol. 574

문화의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오늘도 희망이다 7〉 ich22 서기웅 대표



기독교 문화라고 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를 연상해 보자. 가장 익숙한 것은 바로 음악일 것이다. 좀 더 나아가면, 그림이나 문학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다. 기독교 복식이나 건축까지 생각난다면 꽤 수준급이다. 사실 문화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는 모든 사상과 생활 양식을 전체적으로 가리키기에 기독교가 다룰 수 있는, 또 다루어야 하는 문화 영역은 인간 삶의 모든 것이 아닐까?

자기 분야에서 나름 '이름 좀 날려 봤다'는 엔젤리노들이 모이는 문화 아지트가 다운타운에 있다. 왠지 우리 같은 문외한은 가면 안 될 것 같지만 매월 마지막 토요일엔 완전 개방이다. 아티스틱 본딩(Artistic Bonding)이란 행사다.

다운타운의 한 커다란 창고에 들어서면 오래된 가구 냄새부터 난다. 곳곳에 청바지, 티셔츠, 신발, 장신구가 걸려 있다. 이런 낯섦에 정신 차리고 귀를 기울이면 음악도 들리고 한복을 차려입은 여인네의 그림까지 이른다. 낡은 가구 냄새가 어느덧 향긋한 커피 내음으로 바뀌어 있는 지점이다.

아티스틱 본딩을 여는 ich22(Immortal Christ Humility 22)는 기독교 문화인들의 모임이다. 매일같이 이 창고에 모여 세상 문화에 복음으로 세례 주려고 고민한다. 패션, 음악, 영상, 예술, 커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식히거나 혹은 머리를 짜내는 일에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곳이다. 목적은 한 가지.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로 복음적 문화를 생산하기 위해서다. 아티스틱 본딩에서는 이 고민의 결과물이 공개된다.

이 사역을 시작한 이는 패션 디자이너 서기웅 대표(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다. "문화의 복음적 변혁을 위해 모든 이들이 하나 되자"는 불가능한 상상을 시작할 때는 그가 가장 잘 나가던 때가 아니고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였다. 5년 전 사업 실패로 인해 '죽고 싶다' 할 때 하나님은 그를 새벽예배로 초대하셨다. 그리고 그에게 이 비전을 주셨다.

"아무것도 없는데 어쩌라구요?"

그러나 "널 사랑한단다"라고 속삭이는 하나님을 만난 후, 없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되었다. 그냥 작은 장소를 빌려 무작정 시작했다. 지금까지 13번의 아티스틱 본딩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장소도 큰 창고로 옮겼다. 한국에까지 진출해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한 번 행사에 적어도 수백 명이 방문한다. 성공의 비결은 물어볼 필요가 없다. 서 대표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냥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할 뿐이에요."

이 단체의 이름 ich22에서 22는 빌립보서 2장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마음을 품어"에서 나왔다. 서 대표에겐, 각자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콧대 높은 사람들이라도 그리스도의 겸손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 하나님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이 되신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고는 겸손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서 대표를 그 밑바닥으로 초대해 만나셨나 보다.

좀 더 멋스럽게 살고 싶다면, 오는 5월 27일 LA 다운타운 776 Towne Ave.에서 열리는 아티스틱 본딩에 찾아가 보자. 한 가지만 준비하면 된다. 기독교는 교회에 갇혀 있지 않고 인간 삶의 모든 문화에 관한 것이란 점을 명심하고, 나도 이 기독교 문화를 누리고 생산하는 주체가 되겠다는 다짐이다. 다른 건 걱정 마라. 먹고 마시고 입고 들을 수 있는 모든 문화가 그곳에 있다. **글 · 사진 김준형 기자**

"예수영맥을 따라 광야로 나선 순례자들의"
기독교 대한감리회 빈들교회
담임목사 : 김 용 조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32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818)518-0033

ASE CERTIFIED 나라정비
나라오토덴트 유럽차 전문점 ☑SMOG CHECK
타이어 대리점 GOODYEAR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월~금:8am~6pm, 토:8am~5pm 1201 S. Western Ave, LA 웨스턴과 12가
323.734.48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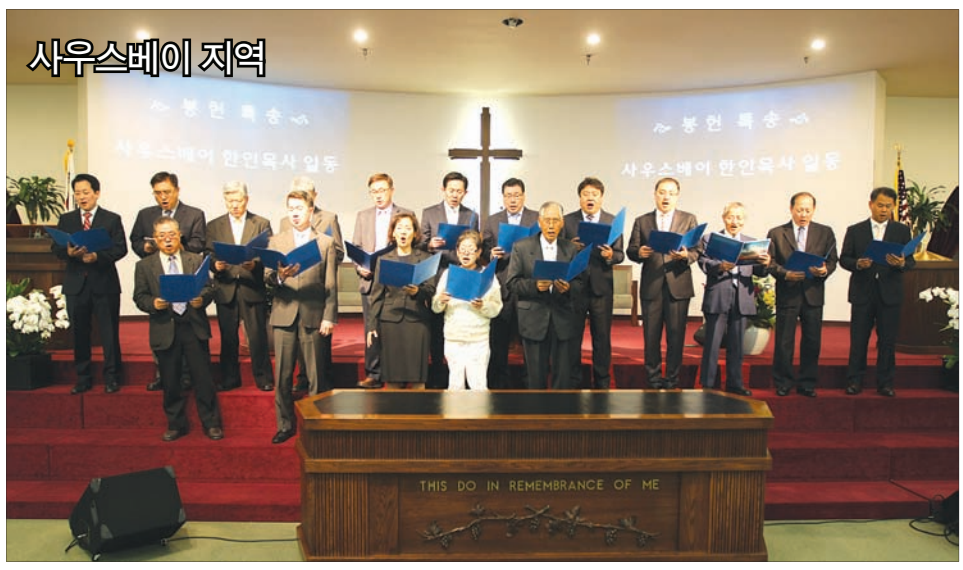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크
교회및 자선,비영리단체는 특별할 수 있음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목회가 행복해지길 원하세요?
기독일보 주최로 김상덕 목사와 함께하는
"행복한 목회 성경에서 그 길을 찾다" 모임에 남가주 목회자들을 초대합니다.
"목회를 하며 힘들고 낙심 되는 일들이 얼마나 나를 짓눌렀는지 모릅니다. 김상덕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고 목회를 배우며 '행복한 목회'를 정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회자가 행복하니 가정이 행복해지고 성도들이 행복합니다. 목회가 이렇게 즐겁고 감사하고 기쁜 것인지 깨닫게 해 주신 귀한 모임에 목회자분들을 초청합니다. – 한인소망교회 윤 목 목사

강사: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개척 및 35년 목회
·일시 : 4월 27일(목) 오후 2시~5시
·장소 : 기독일보(621 S. Virgil Ave. #260, Los Angeles, CA 90005)
·회비 : 없음
·문의 : (310)715-9902, (213)434-1170
* 자리가 한정되어 있으니 미리 예약해 주세요.









"예수 다시 사셨다"

지역별로 부활절 연합새벽예배

LA 지역

지난 16일 부활절을 맞이해 남가주·라스베가스 전역에서 교계 연합체를 중심으로 부활절 연합새벽예배가 거행됐다. LA 지역에서는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성도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아가페선교교회에서 예배 드렸다.

수석부회장 김종용 목사의 사회로 예배가 시작돼 명예회장 정시우 목사가 기원, 상임이사 김영 장로가 대표기도 하고 부회장 정종윤 목사가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19절을 봉독한 후, 세계아가페선교교회 담임 김요한 목사가 "부활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부회장 주재임 목사가 봉헌 기도한 후, 증경회장 지용덕 목사, 엄규서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전 회장), 부회장 조병국 목사, 증경회장 박종대 목사, 임혜빈 대표(KCCD), 증경회장 류당열 목사 등이 남가주 교회 연합, 조국의 평화와 대선, 종교개혁 500주년, 미국의 평화의 이민자 커뮤니티, 인종 화합을 위해 기도했다.

이 예배에서 남가주교협은 부활절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 메시지는 교회와 성도를 향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물질주의와 기복주의, 양극화, 가식주의와 형식주의, 비윤리와 부도덕, 생명경시의 죄, 진영논리를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메시지는 공동회장 김재율 목사가 낭독했다. 예배는 총무 홍성관 목사의 광고와 증경회장 정해진 목사의 축도로 끝났다.

OC · 중부 지역

OC 지역과 중부 지역은 OC기독교교회협의회와 중부기독교교회협의회 연합으로 감사한인교회에서 예배 드렸다. 최국현 목사(중부교협 회장)의 사회로 예배가 시작돼 조헌영 목사(OC교협 수석부회장)가 대표기도하고 전준홍 장로(OC교협 후원이사장)가 성경을 봉독했다. 김영길 목사(감사한인교회)는 "부활, 사망의 고통에서 풀려남"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특별기도 순서에서는 김익현 OC목사회장이 한국과 미국의 영적 각성을 위하여, 엄재선 OC장로협 회장이 교회 갱신과 부흥, 세계선교를 위하여, 이관우 OC기독교평신도연합회장이 지역 교회의 연합과 복음화를 위하여, 신현철 OC교협 부회장이 다음 세대의 비전과 헌신을 위하여 기도를 인도했다. 이아모스 목사(중부교협 총무)가 광고한 후, 이호우 목사(OC교협 회장)가 인사말을 전하고 민경엽 목사(OC교협 증경회장)가 축도했다.

사우스베이 지역

사우스베이 지역은 토랜스제일장로교회(고창현 목사)에서 오전 5시 30분 사우스베이목사회 주관으로 예배 드렸다. 안병권 목사(사우스베이목사회 총무)의 인도로 예배가 시작됐고 이황영 목사(남가주기쁨의교회)가 대표기도, 연합성가대가 특별찬양, 윤목 목사(한인소망교회)가 '부활과 선물'(요 20:19-23)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이 지역의 복음화 △미국과 다음세대를 위하여 △한국의 안정과 정치, 그리고 북한 동포들과 통일을 위하여 기도회가 진행됐다. 이후 이 지역 목회자들이 다함께 특별찬송한 후 이기홍 원로목사가 축도함으로 예배가 끝났다.

LA동부 지역

LA동부교역자협의회가 할렐루야한인교회에서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를 드렸다. 2017년 부활절 새벽, LA 동부지역 성도들이 주님의 부활을 기리며 한 자리에 모였다.

16일 오전 5시 30분 LA동부교역자협의회 주최로 할렐루야한인교회(송재호 목사)에서 열린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에서는 동부교협 회장 김신일 목사(유니온교회)의 사회로 부회장 송병주 목사(선한청지기교회)가 기도했다. 이어 동부지역 각 교회가 연합한 성가대가 "부활 찬송"을 불러 큰 감동을 주었다.

고승희 목사(아름다운교회)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고 목사는 "부활은 낮은 차원의 생명체가 자신의 몸을 버리고 높은 차원으로 이동하여 전혀 다른 생명체로 변화되는 것"이라 설명하고 "성도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자신이 중심되었던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교 후 특별기도 시간이 있었다. 최준우 목사(엠마오교회)가 "조국과 민족, 열방을 위해," 라세염 목사(호산나교회)가 "동부지역 교회들과 다음 세대" 등을 위해 기도했다.

총무 신용환 목사(나성한미교회)가 헌금 기도하고 직전회장 송재호 목사가 광고했다. 모든 예배는 김지성 목사(글로발선교교회)의 축도로 끝났다.

인랜드 지역

인랜드 지역은 인랜드지역교역자협의회 주관으로 인랜드언약교회에서 오전 5시 30분에 예배 드렸다. 박성호 목사(ANC온누리교회)의 사회로 예배가 시작돼 강승배 목사(남가주은파교회)가 대표기도하고 이희철 목사(갓스윌연합교회)가 설교했다. 강문수 목사(에덴선교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인랜드 지역 교회와 복음화를 위해 합심기도를 인도했다. 손상현 목사(두란노교회)가 헌금기도를 한 후 박충길 목사(인랜드영락교회)가 축도했다.

밸리 지역

샌퍼난도밸리지역은 샌퍼난도밸리한인교회교역자협의회 주관으로 밸리연합감리교회에서 오전 5시 30분에 예배 드렸다. 류재덕 목사(밸리연합감리교회)의 사회로 예배가 시작돼 곽덕근 목사(은혜와평강교회)가 기도하고 서오석 목사가 성경봉독했다. 밸리연합감리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0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Inc
•직업전문대학인가(ACCSC)
•신학교 인가(TRACS, ATS)
•BPPE 신규 및 재승인
•어학원/온라인 프로그램
대표 Paul Kim, Ph. D
summitus37@gmail.com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최순길 목사의 남가주 교협 공동회장으로서의 활동을 중단하며

존경하옵는 교계 지도자 여러분과 성도 여러분!

최순길 목사 본인은 남가주교회협의회 공동회장으로서의 모든 활동을 중단하오니 한량없는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 남가주 교협이 하나님 앞에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위하여 보다 더 많은 기도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돌아보건 데 제 46대 회장 강신권 목사와 수석 부회장인 김재율 목사에 의한 교협의 분열은 남가주 교계에 크나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부족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그리고 평신도 눈높이에서 교협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협을 하나로 통합하려고 제 47대 강신권 목사 쪽의 교협회장으로 취임하였고, 취임하기 전 김재율 목사에게 전화로 통합을 하려는 본인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11월 23일 취임기자회견에서 교협통합이 최우선 과제임을 밝혔습니다. 그 후 통합을 반대하는 많은 분들의 저항과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지난 1월 21일 교협 사무실에서 통합 기자회견을 열고 현 공동회장인 김재율 목사와 5가지 항목의 협정서에 싸인을 하고 하나님과 교계 앞에서 하나로 통합하였습니다. 이후 약정서 4번에 공표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교계 전체에 기쁨을 주는 교협이 되기 위하여 지난 4월 14일 제 4차 교협임원회까지 김재율 목사와 하나가 되어 공동으로 교협을 운영하는 데 혼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협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은 이상이며, 환상이었음을 직시하였습니다. 올 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이번 고난 주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교협의 위상을 위하여 2017년 앞으로 남은 교협의 일을 공동회장인 김재율 목사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 여겨져 본인은 공동회장으로서 모든 분야에서 활동을 중단합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이전부터 저와 함께 일하여 오신 임.역원께 감사하오며 아울러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2017년 4월 1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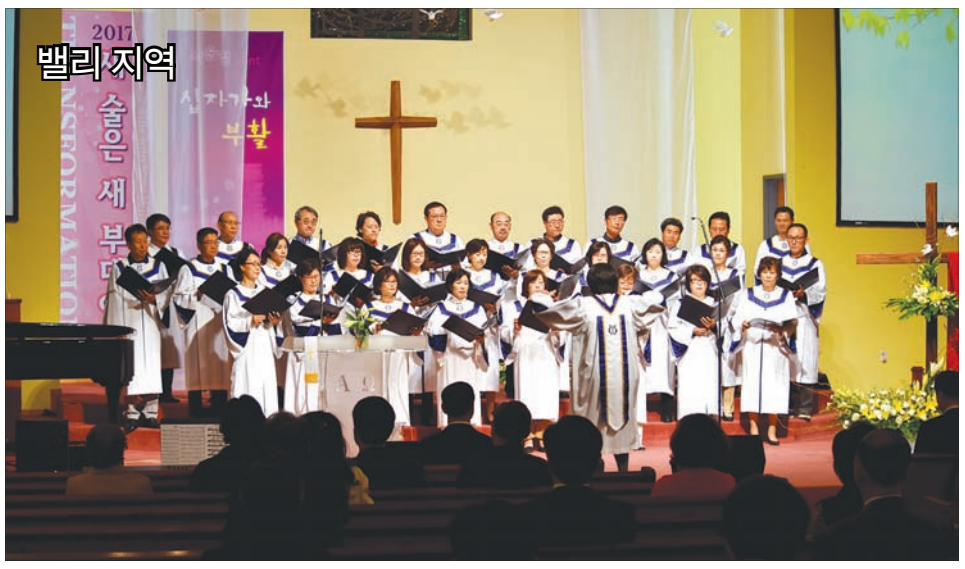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공동회장 목사 최순길

부회장: 표세웅 목사, 양종석 목사, 김동술 목사, 최영하 목사
서기: 이동규 목사 회계: 신인석 목사

This is paid commercial. The contents of commercial is not endorsed nor disputed by the publisher. 본 광고는 유료광고로, 본사의 편집 방향과는 관계 없으며, 본사는 그 내용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교회 성가대가 "부활의 찬가"를 부른 후 문일명 목사(한우리장로교회)가 "부활 신앙"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광고는 김선일 목사(남가주마라톤교회)가 전했으며 나형길 목사(그이름교회)가 헌금기도했다. 밸리 지역 목회자들이 헌금 특송을 불렀고 모든 성도들이 할렐루야를 찬양했다. 축도는 김창수 목사(밸리원로은퇴목사회장)가 했다.

벤츄라카운티 지역

벤츄라카운티 지역은 벤츄라카운티교역자협의회(회장 승광철 목사)가 주관하는 부활절 연합새벽예배가 지난 16일 오전 6시에 카마리오 연합감리교회에서 진행되었다. 이상영 목사(카마리오 연합감리교회)의 인도로 시작된 예배는 김경욱 목사(벤츄라 열린문장로교회)의 기도, 연합찬양대의 "승리하신 주 찬양" 찬양, 남재헌 목사(옥스나드 연합감리교회)의 말씀선포, 권혁래 목사(카마리오 커뮤니티교회)의 헌금 특송, 이정구 목사(벤츄라카운티장로교회)의 헌금기도와 승광철 목사(새생명교회)의 축도 순서로 드려졌다.

말씀을 전한 남재헌 목사는 "부활의 비전(요한복음 12:24)"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우리 성도들이 믿고 전해야 할 한 마디는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가 되야 한다"며 부활의 의미를 역설하였다.

예배 후에는 교회 측에서 준비한 아침 간식을 나누며 교제하는 가운데 함께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올해는 특별히 감동어린 연합찬양과 헌금특송, 그리고 힘있는 메시지로 마치 부흥회에 참석한 것 같은 은혜가 넘치는 연합예배였다고 평하였다.

앤텔롭밸리 지역

앤텔롭밸리 지역은 앤텔롭밸리교회및목회자연합회가 랭케스터사랑교회에서 오전 6시에 예배 드렸다. 안세광 목사의 인도로 예배가 시작됐고 유현준 목사(새마음 침례교회)가 대표기도했다. 설교는 반종규 목사(랭케스터사랑교회)가 "부활에서 임재로"라는 제목으로 전했다. 헌금 기도와 축도는 이필성 목사(랜케스터 한인침례교회)가 했다.

빅토밸리 지역

빅토밸리 지역은 빅토밸리한인목사회 주최로 필렌중앙장로교회(고승경 목사)에서 오전 5시 30분에 예배 드렸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부활을 찬양한 후, 김송국 목사(새생명한인교회)의 사회로 예배가 시작됐다. 이범규 장로(필렌중앙장로교회)가 대표기도한 후, 김경동 장로(필렌중앙장로교회)의 지휘로 연합성가대가 찬양했다. 설교는 김성일 목사(빅토빌예수마음교회)가 "부활과 회복"이란 제목으로 전했다. 우정은 목사(열린문기도원)가 봉헌기도하고 유진선 목사(빅토빌한인원로목사회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샌디에고 지역

2017년도 샌디에고 지역 부활절 새벽연합예배는 샌디에고교역자협의회 주관으로 16일 새벽 5시 30분에 남쪽 지역과 북쪽 지역이 각각 예배를 드렸다.

남쪽 지역은 샌디에고 소망교회(이창후 목사)에서 이창후 목사의 인도로 박흥관 목사의 기도, 연합성가대의 찬양 후 샌디에고교역자협의회 회장인 정성오 목사가 "부활하심으로(벧전1:3-5)"라는 제목으로 설교 후에 강용훈 목사(샌디에고한인연합장로교회)의 봉헌기도, 이호영 목사(샌디에고 씨월드한인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한편, 북쪽 지역은 팔로마 한인교회(서명성 목사)에서 드려졌다. 최동진 목사(샌디에고 반석교회)의 사회로 예배가 시작돼 김희수 목사(샌디에고 베델교회)가 대표기도하고 서명성 목사(팔로마한인교회)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라"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진현 목사(선한목자교회)가 봉헌기도한 후 강찬희 목사(수정교회)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쳤다.

라스베가스 지역

라스베가스 지역은 라스베가스교회협의회(김종수 목사) 주관으로 서부 지역은 갈보리장로교회(조응철 목사), 동부 지역은 라스베가스순복음교회(강일진 목사)에서 각각 예배드렸다.

서부 지역은 임영진 목사(우리좋은교회)의 인도로 조응철 목사의 기도, 연합성가대의 찬양에 이어 김종수 목사가 "이김을 주시는 부활(고전15:50-58)"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종수 목사는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인 죽음과 죄와 사망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것"이라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십자가에서 선포하신 것처럼 용서하는 크리스천들이 되라"고 말했다.

이어 권순광 목사(위드힘교회)의 인도로 대한민국과 라스베가스 복음화를 위해, 라스베가스 지역 교회를 위해 특별기도 후에 강준수 목사(안디옥교회)의 축도로 마쳤다.

동부 지역 예배는 임인철 목사(제일장로교회)의 인도로 강일진 목사의 기도, 순복음성가대의 찬양 후 김태상 목사(휄로쉽교회)가 "부활 후 하신 첫 말씀(요20:19-23)"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역시 김명석 목사(커뮤니티교회)의 인도로 대한민국과 라스베가스 복음화를 위해, 라스베가스 지역 교회를 위해 특별기도 후에 나은진 목사(연합감리교회)의 축도로 마쳤다.

이 협의회는 부활예배의 헌금은 작년에 이어 커뮤니티 노인과 어르신들을 위해 구제사역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선교 부흥을 회복하라 - 14〉

무슬림 대학생 기숙사 전도 이야기-2



이 상 훈 목사
주비젼교회 담임

늦은 밤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이 청년 학생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꼭 전하고 싶었다. 청년도 예수님과 성경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 터키어로 된 사영리 전도책자를 사용하여 그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현관 문이 열리면서 청년의 룸메이트인 다른 청년이 들어왔다. 이미 우리가 와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아주 밝은 모습으로 우리와 인사를 나누었다.

잠시 화징실에 들어가서 손발을 씻은 후 그 청년도 우리 곁에 앉아서 진행중인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 선교지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경험하는 일 중에 놀라운 것 하나는 우리가 전도 대상으로 삼은 영혼에게 집중하여 복음을 증거할 때 그 곁에 있거나 우리의 관심 밖에 있는 영혼이 오히려 복음에 반응을 하며 영접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왕왕 있다는 점이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가 보내 주신 영혼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바로 뒤에 온 그 청년이 그러했다.

복음을 먼저 듣고 있던 청년은 마음의 문을 쉽사리 열지 못했지만 나중에 집에 들어와 친구 곁에서 듣던 청년이 반응하기 시작했다. 그가 질문했다.

"기독교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냐?" "무슬림도 구원받을 수 있냐?" "내가 구원 받으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하냐?"

너무도 진지한 질문들을 받으며 우리는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그들의 뒤쪽에서 그 영혼이 주님을 영접하기를 바라는 중보기도를 계속 묵언 중에 드릴 때 우리 중 한 명이 그 청년에게 대답을 하며 사영리 전도를 진행했다.

새벽 3시. 아무도 잘 수 없었다. 그 좁은 방 안에서는 그때 영적 전쟁 중이었다. 한 영혼을 두고 생명을 거는 영적 대결이다. 선교는 진정 영적 전쟁이다.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처절한 전쟁이었다. 결코 그 청년들을 앞에 두고 지칠 수 없었다. 마침내 한 청년의 입에서 "저 예수님 믿을래요. 나는 어제까지 무슬림, 오늘부터 그리스도인이에요."란 말이 떨리는 목소리로 나왔다.

우리는 감격의 눈물로 그 영혼을 위한 뜨거운 기도를 한없이 드렸다. 영접기도를 하는 그 청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곁의 청년은 "난 아직 준비가 안 되었어요. 당신들이 다음에 다시 오면 믿을께요"라 했다. 그래서 그 해 11월 마지막 주일 필자를 제외한 2명은 터키 이스파르타를 재방문하여 마침내 그 한 청년도 주님께로 인도했다. 할렐루야!



복음을 받아들인 무슬림 청년들



4월 16일 오후 5시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린 미주복음방송 이사장 및 사장 취임예배에 남가주 교계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미주복음방송 이영선 사장 · 한기홍 이사장 취임

GBC 미주복음방송 신임 사장에 이영선 목사가 취임했다. 이 목사는 "장애인의 몸으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견디기 힘들다. 제가 사장직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하보다는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 또 "직원들과 한마음으로 하나되어서 미주복음방송을 세워나가고 빠른 시간 안에 방송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목사는 36년 전 교통사고를 당해 가슴 아래가 모두 마비된 장애인이다. 그러나 장애에 굴하지 않고 이를 사명으로 받아들인 후, 뉴저지 밀알선교단 이사를 거쳐 남가주밀알선교단 단장으로 18년간 사역했다. 그가 단장으로 있는 동안 남가주밀알은 자체 사역도 크게 성장시켰고 장애인 장학금인 밀알 장학복지기금을 14년 동안 무려 181만 달러나 모금해 897명의 학생에게 수여하기도 했다. 16일 은혜한인교회에서 드린 이사장 및 사장 취임예배에는 현 남가주밀알 단장인 이종희 목사를 비롯해 수많은 밀알 동역자들과 장애인 형제·자매들이 참석해 축하했고 이들을 위한 수화통역도 제공됐다. 이 목사도 "저는 지난 18년 남가주밀알 사역에 대한 크레딧으로 이 자리에 섰다. 전적으로 신뢰하며 사역에 함께 한 밀알 가족들에게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예배는 이사 진유철 목사(나성순복음교회)가 인도했으며 신임 이사인 민경엽 목사(나침반교회)가 대표 기도하고 전 이사인 송정명 목사(월드미션대학교 총장)가 "일어나 분명한 나팔을 불자"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사장 이영선 목사와 함께 신임 이사장에 취임한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는 "미주복음방송의 주인은 성도 여러분"이라며 참석자들의 후원과 기도를 요청했다. 사장, 이사장 취임을 축하하며 신승훈 목사(주님의영광교회), 김준식 목사(남가주샬롬교회)가 축사를 전했고 김한요 목사(베델한인교회), 노창수 목사(남가주사랑의교회)는 영상으로 축사를 대신했다. 이어 미주복음방송 직원들이 특송을 불렀다.

이영선 목사, 한기홍 목사 등은 사장이 공석이었던 지난 3개월 이상 사장직을 대리하며 헌신한 상근이사 고승희 목사(아름다운교회)에게 감사 인사도 잊지 않았다. 이날 예배는 윤성원 목사(OC교협 전 회장)의 축도로 끝났다. 김준형 기자



기독교 정신으로 사회를 섬기는 한미여성회가 전화 상담 교육생 특강을 개최했다.

한미여성회 전화 상담 교육생 특강 개최해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여성의 권익 신장과 교육, 봉사를 목적으로 설립된 한미여성회(KAWA)가 지난 4월 초 전화 상담 교육생들에게 아름다운 대화 기술 강사인 여명미, 고명희 교수의 특강을 진행했다.

이 단체는 2004년 3월 설립 이후 전화상담, 자원봉사, 세미나 및 워크샵, 문화 클래스 등을 운영하며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다.

문의) 323-660-5292

권 셸비 기자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이 사 장 : 오병익 발 행 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리스장의사가 커뮤니티의 미래와 함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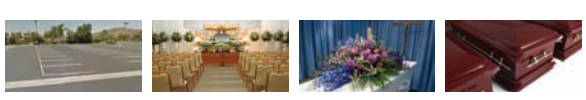
리스장학생 모집

리스장의사가 반이민 정책에 힘들어 하는 서류미비자를 비롯한 모든 한인 학생과 부모님을 위해 리스장의사와 같은 작은 기업들도 함께 응원하고 있다는것을 알리고자 장학금을 준비 했습니다.
목사님, 신부님등 사회지도자들의 추천장과 학생 본인의 현재 상황, 꿈과 희망을 담은 한글 자기 소개서를 아래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심사를 통해 선발된 학생에게 한 학생당 $500, 20명에게 총 $10,000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접수자격 서류미비자를 비롯한 한인 학생
이메일접수처 HR@leesmortuary.com
접수기간 4월1일부터 5월30일까지
발표 6월 5일 개별 통보
지급일시 6월 10일 토요일 오후 5시
지급장소 리스장의사 City of Orange 본사
홈페이지 www.leesmortuary.com

최저가격 보장제
- 유족과 같은 마음으로 리스장의사도 함께합니다. 하지만, 장례는 현실입니다
- 지금은 무한 경쟁시대, 최소 10% 이상 더 저렴한 비용을 약속드립니다

무료출장서비스
- 고인의 교회, 자택에서 장례식을 치루실 수 있도록 출장서비스를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 타 장의사의 채플비용을 절약하시면서 고인과 지인들에게 가장 편안한 장소를 선택하세요



1000대 동시주차 규모의 넓고 편리한 파킹 / 아름다운 채플 / 깔끔하고 안락한 분위기

시카고 스미스 코코란
185 EAST NORTHWEST HIGHWAY, PALATINE, IL 60067
아틀란타 리장의사
4067 INDUSTRIAL PARK DRIVE NORCROSS, GA 30071

24시간 한국어 문의
(714) 469-1040
Fax (714) 333-4916 351 N Hewes St, Orange, CA 92869

Since 1966
리스장의사
Lee's Mortuary FD1164

남에게 전한 후 버림이 되지 말라

고린도전서 9:19-27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 재 효

본문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음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달음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세상지식은 전달하는 것으로 끝이 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영혼을 살리느냐, 죽이느냐로 판가름나기 때문에 교회학교 교사들은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지 않고서는 다른 영혼들을 지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3:1-2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 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에 굴레 씌우리라" 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고 있으며, 구원을 얻었다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직도 그리스도 밖에 있고 진리의 도리를 오해하고 있으며, 믿음 그 자체가 인위적이고 인본주의적 경향 때문에 영적인 구원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가짜 신자라면 그 사람을 통해서는 다른 사람을 구원시킬 가능성이 절대로 없습니다. 이것은 죽은 나무에서 열매를 딸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은 자기 양심의 가책이 정면으로 부딪힐 때 발악을 합니다. 회개하거나 뉘우쳐 반성할 줄 모르고 오히려 양심의 가책을 묵살시켜 버립니다.

"너희는 선생 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거짓교훈이 되었을 때, 그 가르침에 영적인 소망의 기대를 걸고 따랐던 사람들을 모두 지옥으로 쓸어 넣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만나는가에 따라 향방이 결정되는 이 악한 세대에 참 목자를 만나야 한다는 것은 신앙인에게 있어 절대적인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학교 아이들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는 디모데후서 3:7의 말씀처럼 되어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것은 교사의 책임일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율법 의례적인 신앙이 의식화되어졌기 때문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제사장, 장로라는 사람들의 신앙은 극히 외형으로 나타내 보이려는 형식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르치기는 좋아해서 이론적으로 그럴싸하게 떠들어대지만, 진리를 깨닫지 못해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천국 안내자 역할을 도맡아하고 있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저주를 받았던 것입니다(마23장).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만하고 행치 아니하니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바울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진리를 깨닫고 영적인 선교사의 사명을 받았을 때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갈5:24)"는 말씀처럼 자기를 버리고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대걸고 맡기신 직분을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감당해야하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주님의 것으로만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없어서는 안 될 요긴한 지체로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도바울은 선교사로 전도하러 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된것은 겉으로는 그들과 어울리는 듯 했지만 그들의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구원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본문 2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순전히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상대방이 처해있는 현실에 자원해서 동참함으로 영적인 소망을 일깨워 구원해 주기 위해 몸부림쳤다는 말입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어주고,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되어주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예수님이 택하신 그들을 예수님의 소원 따라 구원시킬 수 있기 위한 수고였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는데 자신감이 없고 힘있게 전달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전도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늘소망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없고, 지옥갈 수밖에 없었던 자가 용서받은 데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쁨도 소망도 없습니다. 그저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릴뿐 은혜도, 진리도 모른 채, 성령체험도 없으니 구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런 자들은 예수님을 전할 수 없을뿐더러 성과는 더더욱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도바울이 본문 23-24에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예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달음질하라"고 한 것은 아무리 상대방들의 처지에 깊이 함께 해주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도리, 복음 진리의 교훈에 어긋나는 것까지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술친구 하나 구원시킨다고 술집에 데려가 함께 술을 나누며 전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라는 말씀은 어떤 한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집착하고 집념하고 총 진력하기 위해서는 다른 여러 가지 허망한 문제들에 대한 기대를 깨끗이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서울에서 부산으로 5시간 안에 가야한다면 여러 곳을 경유하면서는 5시간 안에 부산에 갈 수 없습니다. 오로지 부산을 향해서만 질주해야 시간 안에 당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얻었으면 그 소망을 후회없이 영광스러운 자격으로 결실하기 위해서는 그 길이 좁고 험할지라도 오로지 그 길에만 내 사는 참뜻과 목적을 정하고 그 소망에 전 생애를 걸고 경주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세상의 다른 여러 가지 잡다한 풍속이나 유혹, 미끼들을 초월해서 절제하며 천국을 향해야 할 것입니다. 천국으로 가고자 하는 목적의식이 분명하다면 절제는 자연스레 이루어질 것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은 영적인 소망, 내세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먼저 자기심령이 생명의 말씀을 꿀송이같이 달게 받아먹은 후 자신에게 맡겨진 아이들에게 맞추어 전달하고 먹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는 살피지 못하고 단지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고, 말재간으로 아이들을 재미나게 해서 인기나 얻어 보자는 교사들이 있어 안타깝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23:13 이후에 보면 계속적으로 "화 있을진저"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외식하는 자, 소경된 인도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부르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들을 그렇게 부르셨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가르치는 자들은 입술로 선포된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입체적인 가르침을 주어야 합니다. 들려주고, 보여주며, 심령에 부딪치는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무디고 완악한 심령이 부셔져서 죄악이 허물어지고 영생의 새로운 소망을 재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학교 교사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어린 생명들의 중요성을 깨달아 그들을 책임질 수 있는 사명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말씀으로 아는 척하며 잘 가르쳤지만, 정작 본인은 그 가르침을 믿지 못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결국 지옥 길로 향하지 않도록 본문 27절의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는 사도바울의 고백과 같이 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모든 자부터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에 이끌리며 진리의 말씀, 생명의 교훈을 어린영혼들을 책임지는 사명자로서 기도하며, 실천적 생활태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 토요일 오전 7시	목요일 낮 12시 /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국 신문 설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 금요일 오후 2시30분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샘물교회
Saemmool Church
말씀의 샘물/성령의 샘물/ 축복의 샘물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1부:10:30 AM / 2부:12:30 PM
금요기도회 8:00 PM
새벽 기도회(월~금) 5:30 AM
주일학교 주일 12:30 pm / 금요일 8 pm
중고등부 주일 12:30 pm / 금요일 8 pm



정기정 담임목사

15151 Cordova Rd, La Mirada, CA 90638
Tel.(714)749-7770

행복재단에서 풀타임 직원을 구합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욥8:7)

**나의 모습을 후손에게 무엇을 남겨야 될 것인지!
우리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 **행복재단의 풀타임 직원을 구합니다.**
  - 컴퓨터와 영어능력 있는 분
  - 재능을 전수 및 기독상담 봉사하실 분
  - 관절염 환자 한약 분 30분 무료(싯가 $80.00) 선착순 배부(건강원 기부)
  - 뱅크럽시 변호사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 (Chapter 7 변호사 비용 $350.00)

행복재단(Be Happy Foudation)
Tel.(213)545-4787(오후1시~4시)
981 S. Western Ave. #300A, LA, CA 90006
email:bhfhelp@gmail.com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픽/업/가/능

P.G.A Player Tour	(12~14살 1~2명 모집)
P.G.A Player Tour	(8~11살 1~2명 모집)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문의 : 최 제이콥 프로 T(310) 598-0746

Golf Studio 각종 골프클럽 최저가 판매
(Olympic 갤러리아몰 322호)

LA 예닮교회 부설 다중지능 교육원
성격과 적성에 맞는 나 자신의 미래 직업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람의 지문(Finger Print)은 태아의 뇌 발달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여 형성됩니다.
지문(Finger Print)을 통해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개인의 진로(전공)와 직업, 적성을 8가지의 다중지능(Multiple Intellgence)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집단상담(Group Counseling) 개인상담(Personal Counseling) 진로 직업적성검사(Mi test) 문의 (323) 559-0070 상담학 박사과정

LA예닮교회 1134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0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최 제이콥 목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ea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신학박사
LA 예닮교회 담임목사

담임목사 청빙

시드니 새순장로교회는 호주 시드니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2년도에 설립되어 대양주 예수교 장로회 호주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말씀으로 제자를 바로 세우고, 기도에 전념하며, 선교와 전도의 책임을 다하는 교회"의 비전 아래 영적 부흥과 새 세대를 세워나가는 투철한 소명의식과 이민 목회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갈 담임목사를 아래와 같이 모시고자 합니다.

자격요건
1. 학력 : 본 교단이 인정한 정규 신학대학원(M.Div) 졸업자 (총신, 고신, 합신, Christ College(P.T.C.), 미주 총신 등)
2. 연령 : 만 45세 이상
3. 경력 : 목사 안수 후 3년 이상 담임목회 경력
4. 이민교회 경험 및 영어 가능자 선호
5. 호주에서 목회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분

제출서류
1. 이력서(본인 및 가족사진 첨부)
2. 졸업증명서(대학교와 M.Div) 및 학위 증명서
3. 목사 안수 증명서
4. 자기소개서(신앙 및 성장 배경, 목회 소명과 목회 경험 등 포함)
5. 목회계획서 : 목회 비전과 목회 철학, 지원 동기 등(A4용지 4매 이내)
6. 최근 6개월 이내의 설교 2편(CD 또는 웹사이트(Youtube 등) link
7. 존경하는 분의 추천서 2통(봉인)
8. 현재 사역하고 있는 교회의 주보(4주간)

서류제출 마감일 : 2017년 5월 13일

제출처(등기우편 또는 Email 접수)
- 우편 : Sydney Sae Soon Presbyterian Church PO Box 4871, North Rocks NSW 2151, Australia
- Email : chungbing@saesoon.org

기 타
- 제출서류는 우편과 Email 로만 접수합니다.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www.saesoon.org
시드니새순장로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성찬과 그리스도의 신체



민 종 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다석(多夕) 유영모 선생이라는 유명한 선비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그 분은 동양의 전통사상을 기독교와 접목시킨 분입니다. 그분은 한글을 사용하여 동서양의 깊은 사상을 표현하였습니다. 다석의 일지(日誌)에는 "몸맘맘몸"이라는 금언이 소개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몸의 욕구를 구하지 말고 마음을 모으라"는 의미의 간결한 잠언입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롬 8:13)

성경의 가르침이나 유영모 선생의 말은 몸, 신체를 악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나 신체를 정신이나 영혼보다 저급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성경은 몸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 육체가 찢기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른 휘장을 찢으시며 성도를 믿음의 깊은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사상은 신체가 저급하다고 말합니다. 초대교회에 발생한 이단 영지주의는 구원이 그리스도의 죽음, 즉 몸의 대속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영지주의는 영지(靈知), 즉 영적 지식이 구원을 이룬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체는 극복되고 부인되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육신의 소욕을 죽이라"고 하는 것을 육체라고 오해한 것입니다. 실상은 몸 혹은 신체가 아니라 옛사람, 거듭나지 않은 시절의 세속적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은 사뭇 놀라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새 언약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죄를 용서하는 '귀중한 피'이기에 우리는 이 피를 보혈(寶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조차 귀중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눈 휘장입니다(히 10:20). 이 휘장이 필요한 이유는, 죄인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지성소로부터 격리시켜서 생명을 유지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집니다. 휘장이 이제 불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의롭다 여기신 사람에게 숨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만이 일 년에 한 차례씩 들어가던 금기의 장소가 이제는 모든 신자에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성찬식은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그 의미가 놀랍게 풍성합니다.

첫째, 영혼보다 저급한 것이라고 여겨졌던 육체를 통하여 신자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그 육체로 구원을 이루었다는 것은 모든 육체에 대한 하나님의 긍정을 가르쳐줍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부활한다는 것은 구원의 완성이 우리의 육체를 포함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넷째, 지금 부활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 모습, 즉 변화된 육체를 가진 미래의 우리 모습입니다.

다섯째,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됨으로 우리에게 장차 올 승리를 미리 확인하는 예식입니다.

온돌방이 그립다



김 한 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미국에 살면서 가장 그리운 것 중 하나가 온돌방입니다. 특별히 몸이 으스스 춥거나 한기를 느낄 때, 뜨거운 아랫목에 몸을 지지던 어릴 적 기억이 문득문득 떠오릅니다. 아직도 아침저녁으로 오싹한 캘리포니아 날씨에 침대 위에 깐 전기장판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겨울만 되면 제 방의 전기장판을 무척 탐을 냅니다.

요즘 오뉴월 감기도 아니고 계속 몸살기가 가시지를 않습니다. 애드빌을 먹고 겨우 잠드는데, 전기장판을 켤까 말까 망설입니다. 바깥은 화창한 봄날인데, 실내의 써늘한 적막감이 감도는 남가주 날씨는 정말 매력 없습니다. 그래서 온돌방의 대용품이라도 깔아놓고 매일 갈등하며 잠에 듭니다.

얼마 전 유나이티드 항공사에서 자기 승무원을 태우기 위해서 이미 탑승한 승객 한 사람을 강제로 끌어내린 사건을 보았습니다. 이 일로 승객은 코가 부러지고, 뇌진탕에 앞니까지 부러졌다고 합니다. 가장 민주적이고 법대로 살면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는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믿겨지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초과예약이라고 하더니, 결국은 늦게 온 자기 승무원을 태우기 위해서 공항안전요원에게 난동부리는 승객이 있다고 거짓 보고하여, 이런 사단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항공사 CEO는 한 술 더 떠서 승무원들이 원칙대로 상황 대처를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계속 그렇게 하라고 이메일을 띄웠다고 하니, 성난 민심에 기름 붓기였습니다.

미국 시민임에도 해외 갔다가 들어오는 입국 심사에서는 항상 죄인인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왜 입국심사하는 사람들은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누구도 미소를 짓는 사람이 없는 것일까요? 수많은 사람을 대하다 보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옛날에는 웰컴홈(Welcome Home)이라는 얘기도 자주 들었는데, 요즘은 계속 심문을 받는 기분이 드는 것은 저만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월이 하수상하여 이상한 사람들이 입국하는 경우가 많아서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다고 할지 모르지만, 늘 죄인 취급 당하는 여행자들의 심적 부담과 취조실을 방불케 하는 입국 수속 담당자들의 인격 형성이 많이 걱정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점점 삭막해져도 그리운 것은 역시 사람의 정인 것 같습니다. 냉기가 감도는 실내에 이부자리 하나 어깨에 걸치고 따뜻한 아랫목에 엉덩이 부치고 고구마 까먹고 싶은 마음처럼, 온돌방같은 사람들이 아주 그립습니다. 눈보라 치는 겨울에도 불 피워 놓은 따뜻한 온돌방처럼 얼어붙은 몸을 녹일 수 있는 훈훈한 사람들이 그리운 세상입니다.

오늘 그 훈훈함의 열기를 자아내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리고 온돌방과 같이 따뜻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십시다. 얼어붙은 우리 마음이 녹아내리는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편입니다



김 성 민 목사
팰리세이드교회

수년 전, 어느 토요일 오후 막내가 나에게 학교에서 음악 발표회가 있으니 학교로 데려다 달라고 했다. 아무리 바빠도 음악회에 참여해 주어야 한다는 책임감에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학교로 갔다. 그늘도 없는 야외에서 다른 부모들같이 막내가 연주할 때만을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나 더운지 그늘 없는 것이 안타까웠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부모님들과 가족들은 아무런 움직임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자녀들이 연주하는 음악을 귀담아 듣고 박수를 열심히 쳤다. 나와 상관없는 아이들이 나와서 연주를 할 때에도 반응은 똑같았다. 솔직히 연주의 실력으로 말하자면 나 같은 사람이 듣기에도 거북한 소리가 많았다. 그래도 청중들은 정말 열심히 듣고 박수를 쳤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귀한 것을 깨달았다. 별 볼일 없고 아무리 매끄럽지 않은 것이라고 하여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깨달음이다. 학생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곡이고 부모의 기대와 사랑이 듬뿍 담긴 연주였기 때문에 300불을 주고 관람하는 음악회보다 더 가치가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이러한 마음이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해 본다.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정성과 뜻을 다하여 땀을 흘리는 헌신과 충성으로 담당하고, 그 정성을 보며 모두 호흡을 같이 하여 드리는 예배가 될 때에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될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상상이 가는 일이다.

과연 나는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사랑하는가 생각해 본다. 이것은 예배뿐 아니라 교회에서 간식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봉사를 하는 자의 충성된 헌신과 먹는 자들의 박수가 합하여질 때 그 공동체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진실이 통하는 공동체가 되라고 하신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어느덧 막내 아이가 연주하는 밴드부가 연주를 시작하는데 막내 아이는 보이지도 않는다. 제일 뒤에서 드럼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그 밴드부가 다른 부서의 연주보다 더 좋아서 한손에는 카메라를 들로 또 다른 손으로는 나의 다리를 치면서 박수소리를 도왔다. 이전의 팀보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하는 순서였기 때문이다. 자신의 자녀가 이 순서에 있지 않았던 부모들도 똑같이 박수를 친다. 고마운 마음이 든다. 모두 같은 편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린도전서 1장 10절)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하고 진실하기를 원하신다. 특별히 서로를 향하여 혼란과 분열을 버리라고 하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음악회에 참여한 부모들과 같이 한 마음으로 박수를 쳐야 하지 않을까? 결국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같은 편이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대화기술**

"말은 많은데 대화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직장, 학교, 교회 등에서 대화 부재와 대화의 비효능으로 인하여 겪는 부작용을 자주 보고 듣습니다. 대화는 인격과 인격이 상호 교류하는데 한 사람이 본래대로의 자신을 상대방에게 알리고, 또 본래대로의 상대방의 모습을 알려는 기능입니다. 자녀들의 문제, 많은 자살, 우리 주위에 만연하는 Stress, 여러 가지 신체적이지 않은 질병들 그리고 정신적 문제에 따르는 육체적 질병 등 이 모든 것이 피해 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아름다운 대화 기술의 권위자이신 여천기 박사님과 여명미 박사님을 모시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일반인반과 지도자 양성 과정으로 나누어 실시하오니 오셔서 강의 들으시고 행복한 삶으로의 변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의 주제

1. 하나님께 진 빚, 아름다운 대화기술
2. 장벽을 허무는 대화기술
3. 예수님 식 대화 기술
4. 대화 기술은 인간의 능력
5. 하나님이 쓰시는 실력자
6. 옥토마음 가꾸기
7. 기타 자기 관리
8. 대화문을 닫게 하는 언행습관
9. 우리세대의 대화 정서
10. 듣는 기술, 경청(귀담아 듣는) 기술
11. 대화습관
12. 말하기 기술
13. 심정 알아주기, 공감기술
14. "나 전달법" 내 마음(심정) 전달기술
15. 너 때문에 메시지(You-Message)
16. 인간관계갈등 해소를 위한 대화법 가이드
17. 심정표현과 감정표 사용
18. 지혜로운 질문기술
19. 격려하는 기술과 칭찬
20. 분노 표현 기술 Expression of Anger



여천기 박사
CHUN KEE RYU, M.D

- TEACHING APPOINTMENTS
  * Clinical Assistant Professor in Psychiatry, UCI Medical School.
  * Assistant Professor in Psychiatry in Residence, UCLA School of Medicine.
  * Instructor in Psychiatry, Chicago Medical School.
- COMMUNITY SERVICE AND ACTIVITIES
  * Provide extensive psychiatric education through lectures and presentations to Korean community groups, including churches, LIONS, women's groups, alumni groups, and senior citizen groups.
- HOSPITAL PRIVILEGES
  * Western Medical Center, Anaheim, California.
  * St. Joseph Hospital, Orange, California.
  * Western Medical Center, Santa Ana, California.
  * Santa Ana Psychiatric Hospital, Santa Ana, California.
  * Fountain Valley Hospital, Fountain Valley, California.



여(김)명미 박사
Myun g Mi Ryu, M.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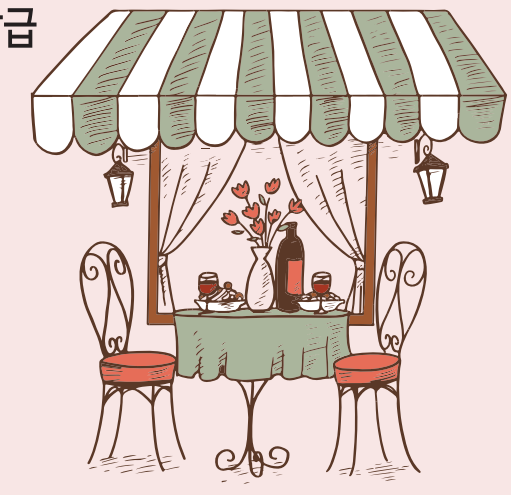
- 경기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1968년 도미
- 미국 가정주치의 1977/ 임상병리학 전문의
- 미국캘리포니아 푸른초장의 집설립: 이사장/소장 1993- 2000
- 가주신학대학원, 에반겔리아 대학 강의
- 미주 복음방송 GBC / Radio Seoul 1650AM Guest Speaker
- 미국캘리포니아 ABC상담 대화교육원 설립 2009, 대표
- 저서 "이런대화가 삶을 바꾼다(공저)
- 상담 교육가/ 초청강사
- 뇌 정신질환과 정신건강(Mental Illness Ministry)교육자
- 미국캘리포니아 NAMI Family to Family 강사
- 대화강사 훈련강사

▪대화 강좌_ 참가비 $30

날짜 : 2017년 5월 16일(화)
시간 : 오전 10:00 ~오후 1:00(주부, 평신도 누구나)
오후 2:00 ~ 오후 5:00(목회자, 사역자, 신학생 등)

▪지도자 양육 대화 강좌 - 강의 수강 마치신 분께 대화지도자수료증 발급

참가비 : $100(교재비, 점심식사 포함)
일시(1차) : 2017년 5월 25일(목) 오전10:00 ~오후 4:00
일시(2차) : 2017년 6월 1일(목) 오전10:00 ~오후 4:00
장소 : 621 S. Virgil Ave. #260, Los Angeles, CA 90005
등록 및 문의 : T.(213) 434-1170



“교회가 전도만 열심히 하고 사회 이슈에 무관심하면…”

소강석 목사, 교회건강연구원 열린목회 광장 발표



소강석 목사(맨 왼쪽)가 발표하고 있다.

교회건강연구원(원장 이효상 목사) 주최 4월 열린목회 광장이 〈목회생태계 회복,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13일 오전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가 ‘목회 생태계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했다. 그는 “교회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공교회를 이루고, 함께 목회 생태계를 회복하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전도해도 시대가 흐르면 미국과 영국처럼 반기독교 정서에 의해 교회 전체가 큰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소 목사는 “교회를 개척할 때, 제목회 방향은 신학과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것과 교회성장 지상주의였지만 반기독교 세력들의 전략과 공격, 사상적 배후에 대해 알게 되면서, 교회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교회들을 연합하는 일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반기독교 세력들의 공격으로부터 한국교회를 보호하고 목회 생태계를 지키는 선도적 개척자, 즉 창조적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되기로 결심했다”며 “이러한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여전히 문제의 심각성을 모른 채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강석 목사는 “미국과 영국 교회를 가서 탐방해 보니, 그들은 개교회를 지켜내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사회가 반기독교 정서로 뒤덮이면서 위기에 처했다”며 “미국에서는 재작년 동성결혼이 합법화됐고, 어느 대도시에서는 교회 목회자들이 설교 원고를 미리 관공서에 제출해 심사를 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목회 생태계 회복의 예로는 ‘동성애 문제’를 제기했다. 소 목사는 “동성애자들을 차별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그들의 인권은 마땅히 보호돼야 하지만, 차별금지법이 원래 발의 안대로 통과됐을 경우 교회가 역차별을 당하고 이단과 소수 종교들이 한국교회를 그냥 두지 않았을 것”이라며 “20대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힘들다는 걸 안 친동성애 진영이 법안 마지막에 ‘성적 지향’을 슬쩍 끼워넣는 등의 ‘유사 차별금지법안’을 6개나 상정했다”고 보고했다.

소강석 목사는 “영국이나 미국 교회도 복음 전도는 열심히 했지만, 사회 이슈에 무관심하게 반응하다 수십 년이 흘렀을 때 교회가 몰락했다”며 “영국은 무슬림이 8%를 넘어섰지만 교회 출석자들은 2%에 불과하고, 이 바람이 미국으로 건너갔다”고 했다.

소 목사는 “과거에는 교회 생태계가 비교적 건강했기 때문에 자기 목회만 잘 하면 됐다. 그러나 앞으로 교회 생태계를 지키지 못하면, 목회를 아무리 잘 하고 싶어도 잘 할 수 없는 때가 올 것”이라며 “지금 목회 생태계를 지켜내지 못하면, 10-20년 후 아무리 가슴을 치면서 후회해도 소용 없는 때가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 목사는 “그런데 한국교회는 여전히 시대의 흐름과 문제의 심각성을 모른 채, 우물 안 개구리처럼 개교회 의식에만 머물러 있다”며 “이러한 때에 우리 한국교회가 가져야 할 두 가지 시대적 사명은 목회자들의 의식 전환과 함께, 우리 모두 연합해서 한국교회를 지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목회자 의식 전환에 대해선 “아무리 자신의 교회를 잘 섬기는 목회자라 하더라도, 교회 생태계 파괴의 심각성과 위기의식을 깨우치는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자기 성만 쌓는 캐슬 빌더(castle builder)가 아니라 킹덤 빌더(kingdom builder)가 되도록 의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에 관해선 “각 교회에서 동성애 전문가들을 초청해 강연을 듣는 것을 넘어, 지역교회들이 서로 연대하고 연합해서 각종 인권조례안 제정에 간섭하고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며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영향력을 행사해 유사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런 일에 앞장서는 기관들에 재정적인 후원을 하면서 그들이 사역의 최전방에서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소 목사는 “우리는 커뮤니티 교회가 아니라 네트워크 교회로 나아가서 공교회를 이루고, 함께 목회 생태계를 보호해야한다”며 “그 길만이 한국교회에 닥쳐오는 위기를 넘어 다시 비상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이자 대안”이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박조준 목사가 강연하고 있다. ⓒ국제독립교회연합회

“목사가정의 행복이 목회의 행복으로 이어진다”

국제독립교회연합회, 필수목회세미나 개최

국제독립교회연합회(설립자 박조준 목사, 연합회장 이병원 목사)가 지난 10일 경기도 성남시 세계지도력개발원(원장 박조준 목사)에서 ‘제7회 필수목회세미나’를 개최했다.

필수목회세미나는 국제독립교회연합회 설립자인 박조준 목사를 비롯해 림택권 목사(성경적성경연구원 대표), 이상화 목사 등이 일주일간 목사고시와 인성검사 및 면접을 통과해 목사안수를 앞두고 있는 예비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필수교육 중 하나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박조준 목사(세계지도력개발원), 최갑도 목사(성내교회), 권문상 교수(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장영출 목사(예수제자선교회) 등이 강사로 나섰다.

특히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한 박조준 목사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에 목사란 직분을 주셨다.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 이 직분을 주신 것”이라며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감격을 항상 잊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이어 “목회여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에 대한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릴 사랑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성도를 차별 없이 사랑해야한다”며 “혹여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를 이해하고 감싸줘야 한다. 자녀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권면했다.

그는 또 “목사가 행복하지 않으면 목회도 행복할 수 없다”면서 “사모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 가정이 행복해야 목사가 행복해지고 이는 곧 목회의 성공과 행복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권문상 교수는 행복한 가정과 교회를 위해 목회자가 배우자의 말과 행동을 경청할 것을 주문했고, 최갑도 목사는 목회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목사와 사모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최 목사는 “목회는 하나님의 일을 겸손히 감당하는 일이자 끊임없는 연습이다. 목회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목회가 살아있다는 증거”라며 “그러나 목회자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 문제의 이유와 원인을 찾기보다는 그 환경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찾아야한다”면서 “또한 사모는 목사가 목회의 어려움을 겪을 때 성도들과 목사 사이에서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사모는 목사의 동역자로서 목회의 주인이 되면 안 된다”고 했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원우회장 출신인 김영철 전도사는 “강의를 듣고 목회에 많은 깨달음을 얻었고, 강사들의 말씀을 삼위일체 되신 신비로운 주님의 음성으로 받았다”며 “조화로운 가정이 목회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다시 한 번 새기게 해준 부부 필수목회세미나를 준비해준 국제독립교회연합회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김진영 기자

“예 수 부 활 하 셨 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 11:25~26)

남가주 새언약교회
성령께서 이끄시고 주도하는 교회

예배시간 안내
주일 1부 오전 9:00
주일 2부 오전 11:00
수요큐티모임 : 저녁 7:00
금요성령집회 : 저녁 8:00
새벽기도회 : 오전5:30(월~금)
새언약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30
교회학교(Child Youth) : 매주 주일 오전 11:00


강양규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3407 W. 6th St, #601, #620, LA, CA 90020
T.(213)434-1083 www.new2011.org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 11:25~26)

주비젼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이상훈 담임목사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주소 및 전화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90247
T. (714) 296-6783 www.sbhisvision.org



법원이 18일 한기총 이영훈 대표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한기총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한기총 이영훈 회장 직무정지

대표회장 연임 관련, 자격 가처분 받아들여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이영훈 대표회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지난 1월 31일 한기총 정기총회에서 제22대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약 78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51부(이제정 판사)는 17일 김노아 외 1인이 이영훈 목사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을 18일 일부 인용하며,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그의 직무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미 한기총 20·21대 대표회장을 지낸 이영훈 목사가 올해 또 대표회장을 연임한 것이 '대표회장의 임기를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는 한기총 정관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이영훈 목사는 홍재철 목사가 지난 2014년 8월 한기총 대표회장직을 사임하면서 그해 9월부터 제20대 대표회장직을 수행하다 2016년 1월 22일 제21대 대표회장에 다시 선출됐다.

아울러 재판부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중에서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뜻을 밝혔다. 이렇게 되면 지난 2011년 소위 '금권 선거' 논란으로 촉발된 한기총 사태 이후 다시 변호사가 대표회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법원은 2011년 당시 길자연 목사에 대한 한기총 대표회장 인준 절차를 문제 삼아 그의 직무를 정지하고, 김용호 변호사를 직무대행으로 선임했었다. 이후 직무대행 주도로 법적 절차를 다시 밟으면서 길 목사는 그해 7월 열린 특별총회를 통해 대표회장에 다시 인준됐다.

그러나 이번엔 재판부가 이영훈 목사의 한기총 대표회장 자격에 대한 문제를 비교적 명확하게 지적해, 절차적 문제로 직무가 정지됐던 길자연 목사 때와 달리 이 목사의 대표회장 복귀가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는 게 일각의 전망이다.

한편,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은 18일 개최한 실행위원회와 임시총회에서 한기총과의 통합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김진영 기자



원로목회자들이 부활절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 출근길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줬다. ⓒ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재단

원로목회자들 부활절 맞아 이웃 섬겨

출근길, 거리 지나는 이들에게 따뜻한 떡 선물

한국교회 원로목회자들이 솔선수범의 특별한 섬김과 나눔으로 부활절을 기념했다.

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재단(이사장 임원순 목사), 한국기독교평신도총연합회(총재 정근모 장로), 한국기독언론재단(총재 한은수 감독), 한국기독교원로목사회(대표회장 문세광 목사), 한국기부재단(대표회장 이주태 장로)이 부활절 다음날인 17일 아침 출근길에서 부활의 생명과 복음, 사랑을 전하며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 주었다.

원로목사들이 이른 아침 따뜻한 떡을 직접 나눠주자 바쁜 출근길에 발걸음을 재촉하던 사람들도 밝은 표정으로 떡을 받아들었다. 기독교 관련 단체에 근무하는 이부터 일반 직장인, 생수 배달하는 분, 야쿠르트 아주머니, 폐지 줍는 아저씨, 퀵 서비스 하는 분, 택시 운전기사 등 다양한 이들과 부활의 기쁨을 나눴다.

생수 배달하는 분은 "원로목사님들이 수고하신다"며 감사한 마음에 생수 1박스를 선물로 주고 가셨고, 카페에서는 따뜻한 커피로 원로목사님들을 대접하기도 했으며, 직장인 한 분은 피로회복 음료를 건네기도 했다.

폐지를 줍는 아저씨는 "나같은 사람에게도 떡을 나누어 주냐"고 웃으시며 "부활절이 참 감사한 날"이라고 전했다고 한다.

임원순 목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상처받은 국민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을지 깊이 살피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하나님의 사랑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본을 보이기 위해 부활절을 맞이해 떡을 준비하게 됐다"고 했다.

한은수 감독은 "성경에 보면 마지막 성만찬을 거행하신 후 하신 말씀이 '내가 올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이다. 떡은 주님의 헌신과 희생을 기념하는 의미가 있다"며 "오늘 나눠준 이 떡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는 다짐의 의미이며 그 실천으로 모든 사람들과 예수님을 기념하며 함께 나누는 참 의미의 실천"이라고 전했다.

이상모 목사(한국기독교원로목사회 명예회장)는 "부활절을 맞아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석구석 어두운 곳이 밝아지고, 추운 곳이 따뜻해질 수 있도록 다함께 기도해야 한다. 2017년, 승리하고, 교회와 사회, 국가와 세계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기독교인들이 되어야 한다"며 "초대교회의 부흥처럼 대한민국에 다시 한 번 부흥의 바람이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주태 장로는 "부활절뿐만 아니라 앞으로 기독교의 절기와 기념일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것"이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교회맛집 선교회

LA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젊은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 - 버질중학교 / 토요새벽 - 1가와 버몬트 코너
주중새벽-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민2세를 책임지며, 이민가정을 치료하며, 선교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1:20 수요예배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 6:00
학생, 청년부 예배 오전 11:20
연제선 담임목사
LA 온하늘교회
1540 S. St Andrews Pl., Los Angeles, CA90019
T.(818)983-9024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 - 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1025 S Catalina St, Los Angeles, CA90006
T. (213) 909-6473 / www.missionla.org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믿음교회
피난처 되시는 예수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제자들의 공동체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6:00
매일 성경통독 (월~토) 오전 7:00
엘리야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1508 S. Vermont Ave., LA, CA 90006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4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1부 오전 8:0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5:30
주일예배3부 오전 11:00
박영천 담임목사
나성동산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2525 W. James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213) 487-3920

1부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6:30
EM 예배 오후 1:00 토요한국학교 오전10:00 ~오후1:00
한어청년부 오후 1:30 오병이어 화 오전11:00 ~오후6:00
서건오 담임목사
나성서부교회
영적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영적 리더쉽을 발휘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939-7323 / www.kwpcla.org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찬양예배 오후 3: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박헌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 (213) 383-2602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11:00
김문수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9:00 유초등부,중고등부 오전11:00
2부예배 오전11:00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 주일 오후 1:30
수요집회 오후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분 (화~금)
오전 6:00 (토)
정우성 담임목사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213)598-0191

주일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10:30
EM예배 주일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1:30 목요찬양예배(목요일)오후 7:30
교회학교 주일 오전 10:30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us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EM예배 오전 10:00
조인수 담임목사
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며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주일오후 12:00
토요탈북민 모임 오전 11:00
김영구 담임목사
나눔장로교회 엔키아 선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407 W. 6th St. #412, Los Angeles, CA 90006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김요섭 담임목사
열매교회
전도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323)737-3009 C. (213)215-8523

1부예배 오전 09: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김종호 담임목사
예향선교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isaacdew@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30 금요기도회 오후9: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5:30
3부예배 오전 1:3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25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213)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류종길 담임목사
임마누엘선교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imch.com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금),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소.친.초 정신의 흐름,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종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주일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오전10: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11:00
오전 6:00 (토) 중고등부 오전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주일 1부 오전 9:00 새벽기도회 : 오전5:30(월-금)
주일 2부 오전 11:00 새언약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30
수요큐티모임 : 저녁 7:00 교회학교(Child Youth) : 매주 주일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 저녁 8:00
강양규 담임목사
남가주 새언약교회
성령께서 이끄시고 주도하는 교회
3407 W. 6th St, #601, #620, LA, CA 90020
T. (213)434-1083 www.new2011.org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는 90일 성경일독
대표 **주해홍** 목사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Ezra Bible Reading Ministry
1661 Raymond Ave. #265, Anaheim, CA 92801
www.ezrabiblereading.com

LA동부, 팜스프링스지역, 라스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00 / 3부영어예배 오후 1:00 /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이희철 담임목사
갓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00 / 영어예배 오전 10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 유치부 예배 오전 11: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축복의 통로되어 만물을 새롭게 하는 십자가 공동체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주일예배 오전 10:30 /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 주일학교 주일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New Hope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50 S. Rosemead Blvd., Pasadena, CA 91107
T. (626)872-2405 교회 , (503)332-1941
www.newhopechurchla.com

주일1부예배 오전 9:00 /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조응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9:30 / 3부예배 오전 11:00 /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예배 오후 8:00 /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 2부예배 오전 9:45 /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 2부예배 오전 9:15 / 3부예배 오전 11:45 /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EM 1부예배 오전 9:30 / EM 2부예배 오전 11:45 / 수요말씀강해 오후7:30 / 새벽예배 오전(월-금)5:30 (토) 오전 6:00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00 /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10:00~11:00 / 새벽예배 오전 6:00(월 ~토)
수요예배 오후 7:30 / 금요기도회 오후 9:00
이춘준 담임목사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오전 11시 (본성전)
금요예배 오후 7:30 / 매일QT 월~금 오전 6:00 /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최승목 담임목사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본성전 :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7:45 / 2부예배 오전 10:00 /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 금요기도회 오후 8:00
이승준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00 /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 수요예배 오후 7:30 /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9:30 / 3부예배 오전 11:00 / 4부(젊은이예배) 오후 1:30
EM 1부/2부 11:00 / 중/고예배 오전 11:00 /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구원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 2부예배 오전 11:00 / 3부예배 오후 1:30 /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15 (화-금) /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10:00 /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00 /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00 /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 EM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50 / 금요성령대망회 금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00 /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이상훈 담임목사
주비젼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90247
T. (714) 296-6783 www.sbhisvision.org

1부예배 오전 9:30 / 2부예배 오전 11:00 / 3부열린예배 오후 1:30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롬 10:15)
이호우 담임목사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562) 453-5644

1부예배 오전 9:00 / 2부예배 오전 11:00 /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 1부 오전 8:00 / 주일2부 오후 12:45 / 수요예배 오후 7:30 /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윤 목 담임목사
한인소망교회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말씀이 선포되는교회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 , 90274
T. (310)715-9902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밸리, 벤추라, 버뱅크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 주일 성경공부/새교우반 오후 1:00 / 수요찬양예배 오후 7:20 / 새벽예배 오전 7:00 (토)
권오균 담임목사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hurch.com

주일 1부 오전 8:00 / 2부 오전 10:30 / EM예배 오후 12:30 / 유년부 오전 10:30
중고등부 오전 10:30 / 한어청년 오후 12:30 / 수요예배 오후 7:30 /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00 / 2부 예배 오전 10:00 / 중고등부 오전 11:00 /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 / Awana 오후 8:00 (금) /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 (금) /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낮은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 (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 주일 2부 오전 9:30 / 주일 3부 오전 11:30 / 젊은이예배 오후 2:00
EM예배 오후 1:30 /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 주일예배 2부 오후 1:30 / EM/YOUTH 예배 오후 1:30
유.초등부 예배 오후 1:30 / 새벽 예마 기도회 오전 5:30(월~금) / 금요예마기도회 오후 7:45
박정환 담임목사
예수인교회
Christian Missional Church
10452 Louise Ave. Granada Hills, CA 91344
T. (434) 229-6597 / cmc-12.com / yesuin12@gmail.com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 영어예배 오전 10:00 / 금요예배 오후 8:00 /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뉴저지지역 부활절연합예배가 16일 아모리센터에서 1천8백여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사진은 연합찬양대의 찬양.

뉴욕-뉴저지 지역 2017년 부활절연합예배 성황

뉴저지는 첫 대규모집회로 진행

2017년 부활절을 맞아 뉴욕교회협의회(회장 김홍석 목사)와 뉴저지교회협의회(회장 김종국 목사)가 오전 6시를 기해 연합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했다.

뉴욕교협은 지역별로 총 14개 교회에서 부활절연합예배를 드렸으며, 특히 뉴저지교협은 교협 창립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연합집회로 진행, 아모리센터에서 1천8백여 명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활을 선포했다.

뉴저지교협 부활절연합예배는 회장 김종국 목사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윤명호 목사(부회장) 예배의 부름, 교협 임원단의 찬양 인도, 유재도 목사(뉴저지한인목사회장) 기도, 박근재 목사(뉴저지목사회 부회장) 성경봉독, 뉴저지연합찬양대 연합찬양, 김창길 목사(뉴저지장로교회 원로) 설교, 안성훈 목사(뉴저지연합교회 담임), 김은범 목사(사랑의글로벌비전교회), 안민성 목사(하베스트교회) 합심기도 인도, 김진수 장로(교협 부회장) 헌금기도, 남성목사합창단 헌금송, 장동신 목사(총무) 광고, 윤명호 목사 축도, 윤석재 장로(감사) 친교기도 등의 순서로 드렸다.

설교를 전한 김창길 목사는 '십자가 너머 부활과 영생을'(고전14:2-8)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부활은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오는 것이며 죽지 않으면 부활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면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능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라면서 "십자가 너머의 부활과 영생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을 당부했다.

이날 예배에서는 한소망교회를 비롯한 뉴저지 지역 교회들이 연합해 구성된 뉴저지연합찬양대(지휘 한형락 안수집사)가 '할렐루야'를 합창, 장엄한 장면을 연출하며 감동을 전했다.

또 예배 중 합심기도 시간을 통해 '한국과 미국을 위해', '뉴저지 교계와 이민사회를 위해', '종교개혁 500주년과 선교사를 위해' 등을 기도제목으로 다 같이 뜨겁게 기도하는 순서를 진행하면서 첫 대규모 부활절연합예배의 은혜를 더했다.

뉴욕 6지역인 남플러싱지역 연합예배는 이창종 목사(뉴욕동서교회)의 인도로 마하나임 찬양팀(뉴욕선민교회) 개회찬양, 전희수 목사(기쁨과영광교회) 기도, 찬양대(뉴욕충신교회) 찬양, 백문현 목사(미주사랑의교회) 말씀, 안경순 목사(제일사랑교회) 헌금특송, 박진하 목사(퀸즈침례교회) 헌금기도, 권금주 목사(기쁨과영광교회) 광고, 김혜택 목사(뉴욕충신교회) 축도 등의 순서로 드렸다.

뉴욕 8지역인 동플러싱지역 연합예배는 정관호 목사(뉴욕만나교회)의 인도로 손성대 장로(교협 이사) 기도, 뉴욕만나교회 찬양대 특송, 이승호 장로(뉴욕만나교회) 말씀봉독,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말씀, 신우철 목사(가스펠장로교회) 헌금기도, 문석호 목사(뉴욕효신장로교회) 축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올해 뉴욕과 뉴저지에서 진행된 부활절연합예배는 모두 예년과는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시도를 선보였다. 뉴욕지역은 뉴욕교협이 지역별 활동을 강화한 이후 드리는 첫 부활절연합예배로 진행하면서 기존의 20여 곳에서 드리던 것을 14지역으로 줄여 더욱 결속을 다졌고, 뉴저지지역은 첫 대규모 연합집회를 통해 뉴저지지역 교회들의 연합 활동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형제교회 시애틀 캠퍼스 예배가 드려질 빈야드 크리스천 펠로우십

형제교회 시애틀 캠퍼스 킥 오프 예배

형제교회(담임 권준 목사)는 부활주일인 지난 16일, 워싱턴대학(UW) 인근 빈야드 크리스천 펠로우십'에서 '형제교회 시애틀캠퍼스' 킥 오프 예배를 드리고 시애틀 지역 성도들을 품고 젊은 세대와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로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형제교회 시애틀 캠퍼스는 워싱턴 대학 한국 유학생들이 중심이 된 '아델포스' 청년 대학생 및 유학생들과 더불어, 최근 하이테크 기업들의 인재 영입으로 시애틀 다운타운과 인근 지역으로 대거 유입되는 젊은 가정들의 예배 참석과 신앙 성숙을 이끌게 된다.

또한 시애틀 캠퍼스는 형제 교회 내 유학생 출신 가정들을 대학부 청년들과 멘토로 연결시켜 청년들의 신앙을 인도하고 가족과 같은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교회 공동체로 나아갈 계획이다.

이날 예배에서 설교한 권준 목사는 "13년 전 '어떻게 하면 워싱턴 대학 학생들이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이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 청년 리더로 세울지' 고민하며 아델포스를 시작했고, 지금도 마음 속에 끊임없이 두드리는 그 소망이 있다"며 "시애틀 캠퍼스가 대학 청년들만의 예배가 아니라 청장년이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꿈이 가득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다음 세대의 리더를 양육하고 하나님의 부흥을 이 땅에 임하게 할 주역들이 세워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형제교회 시애틀 캠퍼스는 예전 형제교회에서 젊은 가정들을 담당해 큰 부흥을 일으켰던 정찬길 목사가 담당 목사로 사역한다. 정 목사는 교회 내 각 사역 부서와 사역 팀을 구성해 안정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말씀에 집중해 복음의 능력이 넘치는 건강한 교회로 이끌 계획을 세우고 있다.

김 브라이언 기자


고난 주간인 4월 15일 예배에 참석한 새들백교회 교인들의 모습. ⓒ새들백교회

부활절 하루 전 예배에서 296명 회심

새들백교회 "참석자수, 2배 가까이 늘어"

부활절 하루 전 새들백교회를 찾은 이들 가운데 296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새들백교회 릭 워렌 목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활 주일을 앞두고 드려진 2번의 예배에서 약 296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이들은 새들백교회 교인들의 친구와 동료들이며 부활절을 맞아 예배에 초청돼 왔다"며 이같이 전했다.

워렌 목사는 "이것을 명심하라. 성경은 믿지 않는 자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그들을 돌보는 이들에게는 천국의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한다"고 했다. 2번 드려진 예배의 총 참석 인원은 약 14,400명이었다. 워렌 목사는 "작년에도 동일하게 부활절 전야 예배를 드렸는데, 그 때보다 참석자가 2배 가까이 늘었다"고 덧붙였다.

워렌 목사는 부활절을 앞두고 공개된 영상에서 "3년 전, 당시 27살이었던 아들 메튜가 죽은 이후, 부활절은 더욱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다"면서 "아들은 어릴 때부터 정신병과 싸우고 있었다. 최고의 의료진의 도움과 중보기도, 그리고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활 전 주에 결국 희망을 포기하고 말았다. 우리 가족은 절망했고, 매튜가 자신을 절망에 내어준 그 날은 내 인생 최악의 날이었다"고 전했다.

또 "지난 3년 동안,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수십만 명의 가족들과 개인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었다. 그들에게 어떻게 우울증을 다루는지, 어떻게 고통과 슬픔을 견디는지 물어보면 대답은 늘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였다. 하나님의 은혜가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나와 아내를 지탱할 수 있게 해주셨다"고 덧붙였다.

워렌 목사는 부활절을 맞아 '자비의 기적'(The miracle of Mercy)이라는 새로운 시리즈 설교를 시작했다. 그는 "여러분이 배운 내용이 언젠가 여러분과 친구들의 삶을 구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강혜진 기자

테러 당한 콥트교회, 부활절 예배 드려

"죽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메시지"

약 4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폭발 사고 후 이집트 콥트교회 기독교인들은 테러 공격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부활절 예배를 드렸다.

카이로의 세인트마크 성당에는 최소 8명의 보안요원들이 교회로 들어서는 타와드로스 2세 총대주교를 엄위했다. 그는 예배 도중 기도회를 인도했으며 일부 사역자들도 예배에 참석했다.

세인트마크 조직위원회 라피크 비쉬리(Rafiq Bishry) 위원장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부활은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현재 이집트 당국은 교회 반경 400m 이내로 통제선을 설치하고 차량을 단속 중이며, 폭발물 처리반이 전국 교회를 순찰하면서 폭탄으로 의심되는 물건들을 조사 중이다.

인권단체인 국제사면위원회는 지난달 이집트 당국에 "시나이 반도에 살고 있는 콥트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긴급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현재까지도 수 백명의 콥트 기독교인이 다양한 단체들의 포획 대상이 되거나 살해를 당하고 있다. 이집트의 어느 누구도 차별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격으로 최소한 100가정과 200명의 학생들이 이집트를 떠나야 했다.

수니파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는 이번 폭탄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며 추가 테러를 경고하고 나섰다..

강혜진 기자


백악관에서 기도하는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트위터

트럼프, 취임 후 첫 부활절 예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근의 교회가 아닌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팜비치의 한 교회에서 취임 후 첫 부활절 예배를 드린 것으로 알려졌다.

폴리티코 등 외신은 1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아내인 멜리니아 여사와 2005년에 결혼식을 올린 플로리다주 팜비치 소재 '베데스다 바이 더 시'(Bethesda-by-the-Sea) 교회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렸다고 전했다.

이날 예배에는 장남 트럼프 주니어, 차남 에릭, 차녀 티파니, 막내 아들 배런 등 4명의 자녀가 참석했으며 최근 백악관 보좌관 역할을 맡은 장녀 이방카는 유대인인 남편 재러드 쿠슈너와 함께 유대인의 축제인 유월절 기념차 캐나다로 스키여행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활절 휴가를 위해 지난 13일 워싱턴을 떠나 자신의 소유인 마라라고 리조트에 도착했다.

한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8년 전 '대통령의 교회'로 불리는 백악관 인근 '세인트존스 성공회 교회'에서 취임 후 첫 부활절 예배를 드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활절 당일 오전부터 트위터에 자신의 납세 문제를 둘러싼 시위에 불만을 제기하는 내용의 글과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며 북한 문제의 해결을 압박하는 내용의 글 등을 올렸다. 강혜진 기자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김인식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가 되어 3300 세계비전을 이루는 생명공동체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빨리채플 Valley Chapel
주일 1부 예배 오전 8: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1:45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T.(818)363-5887
LA예배처소
주일 1부 예배 오전 8: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3460 Wilshire Blvd, Ste 700, LA, CA 90010
Tel: (213) 232-3163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O.C./얼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1부) 10:00am
(2부) 1:30pm
새벽예배 (월-토) 5:00am
화요중보기도회 7:00pm
수요돌파기도회 9:00pm
금요온전철야예배 8:00pm
~(다음날) 7:00am
토요청년예배 7:00pm
앤드류 김 담임목사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714-600-7700 www. 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금요찬양 오후 7: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김영길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11:00
2부예배 오전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영 유아부 오전 11:00 EM,대학부 오후 1:30
유 초등부 오전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5:30, 토 6:3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Lambert&Puente)
T.(562)691-0691 F.(562)691-0698 / nachimban.org

주일 1부예배 8:00 AM
주일 2부예배 11:00 AM
주일 3부예배(영어) 1:30 PM
금요찬양예배 7:30 PM
주일학교 11:00 AM
새벽예배 화-금요일 5:30 AM
토요일 6:30 AM
이원준 담임목사
남가주가스펠교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8132 Garden Grove Bl., Garden Grove, CA 92844
T. (714) 799-5673 email : 8132gospelchurch@gamil.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셀기족 예배 :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벧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5600 Crescent Ave., Buena Park, CA 90620
T.(714) 806-2562 kpcadavid@yahoo.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
박재만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3111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토요새벽 오전 6:00 본당
2부 주일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공부 저녁 8:00 본당
3부 주일예배 오후 1:30
허귀암 담임목사
놀웍연합감리교회
Norwalk United Methodist Church Korean Ministry
13000 San Antonio Dr., Norwalk,CA 90650
T.(562)802-4959 C.(714)308-7308 / usa8291@gmail.com

주일예배(KM) 주일11:00am
영어예배(EM) 주일 9:00am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금요찬양예배 8:00pm
(매월 두번째 금)
새벽예배 화~금 5:30am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Mission Community Church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전11:30
금요예배 오후8시
새벽예배 (월-금) 오전5:30
EM주일 오전11:30
교육부 오전11:30
김일권 담임목사
다감사교회
The Gamsa Community Church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714)988-3321, www.dagamsachurch.org

주일예배 1부 오전8:30
2부 오전 10:30
3부 오후 12:20
4부 오후 2:00(젊은이예배)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토 새벽 6:20
고현종 담임목사
디사이플교회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949)502-4923 / www.disciplecc.org

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30
금요 Alpha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이 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일본어 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중등부 오전9:15
고등부 오전11:30
한어부 오전11:3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권혁빈 담당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 기도모임 오후 8:00
토요한글학교, 에프터스쿨
P-kinder(Korean) 오전 11:00
Children(1-6) 오전 11:00
Youth(7-12) 오전 11:00
College 오후 1:00
이동준 담임목사
얼바인 아름다운 교회
17702 Cowan, Irvine, CA 92614
T. (949)250-1111 / www.beautifulch.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국어)
FAME예배 오전 11:30 (청년 영어)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장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박경호 담임목사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주일 예배: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1부예배 오전8:15
주일2부예배 오전10:00
주일3부예배 오전11:45
영어주일예배 오전10:00
유년부,초등부예배 오전11:30
영어중고등부예배 오전11:30
한어중고등부예배 오전10: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5:30,
토,주일 오전6:00
엄영민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898-1068 F. 714-373-3097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rcoc.com

1부예배 오전 07:30
2부예배 오전 09:30
3부예배 오후 11:30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EM 오후 1:30
히스패닉 예배 오후 5:00
수요기도회 : 오후 8:00
새벽기도 :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 lordlight.org

플러튼 채플 Fullerton Chapel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목요영성집회: 7:45pm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17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2
T. (657)217-5558

주일 설김이 예배 : 오전 9:00am
주일 한국어 예배 : 오전 11:00am
주일 영어 예배 : 오전 11:00am
주일 유초등 예배 : 오전 11:00am
금요기도회 : 금요일 오후 8:00pm
새벽기도: 월-금요일 오전 5:30am
토요일 오전 6:00am
임경남 담임목사
토기장이교회
1808 W.Lincoln Ave., Anaheim, CA 92801
T.(714)234-5338 / www.potterscc.com
E-mail : info@Potterscc.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조원재 담임목사
하나님의 은혜교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자"
14706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213) 247-7440 / godsgracechurch.org

KOBE PEARL
HELEN AIKO

고베펄 '윌셔 보석마켓' 그랜드오픈 기념

진주, 홍산호비드 2만불 경품대잔치



2등 상품
바로크
비드

1등 상품
천연 홍산호 비드

이벤트 하나!

2만불경품대잔치 상품내역안내

1등: 홍산호 비드 목걸이 2명 ($5000 상당)
2등: 바로크 천연 진주 비드 목걸이(2명) $2500 상당
3등: 2줄 진주 비드 목걸이(2명) $2000 상당
4등: 고베펄 핵진주 브로치 (10명) $100 상당

1. 고베펄 행사기간 중 제품 구매고객 전원 자동 응모됩니다.
2. 행사 마지막날 경품추첨이 이루어집니다.
3. 당첨자발표는 고베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합니다.
4. 상품 수령 기한은 60일이며 우편 또는 당첨자 직접 방문 픽업 가능합니다.

최대 50%세일

일본공법 한국세공

Mother's Day 고베펄 칼라스톤 특별전

이벤트 둘!

300불이상 구매고객 선착순 30분께 두줄 진주목걸이 증정

두줄바로크
진주목걸이
($799불상당)

$99 부터 $599까지

마더스데이를 맞아 한국세공의 부담없는 가격대의 선물용 합성 칼라스톤 특별 기획전이펼쳐집니다.
500여점의 다양한 디자인의 고베펄 칼라스톤 신제품을 고베펄 윌셔 보석 마켓 에서 만나보세요!

선물용으로 좋은 핵진주 반지 , 브로치

고베펄이 마련한 경제적인 가격대의 일본산
핵진주 브로치와 반지 귀걸이등 마더스데이
2017년 신제품 최고의 선물!

헬렌아이코 혼수용
프리미엄 아코야진주

바로크 진주
BAROQUE PEARL
진주의 여왕

바로크진주 프리미엄 헬렌아이코
컬렉션 3종 2종 세트 및 반지 펜던트
세상에 단 하나뿐인 디자인 2017년
신제품 전시 판매합니다.



고베펄 윌셔 보석 마켓 그랜드오픈 행사 일정

1차 : 2017년 4월 17일(월) – 22일(토)까지
2차: 2017년 4월 24일(월) – 29일(토)까지
3055 Wilshire Bl #450 LA CA 90010
(윌셔와 웨스트몰랜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빌딩 4층)

문의전화:
323.999.1558
www.kobepearl.com

고베펄 윌셔 보석마켓 영업시간 안내
월요일 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요일은 쉽니다.

각종신용카드 환영합니다.

무료 파킹



고베펄, 윌셔길에 '윌셔보석마켓' 그랜드 오픈

미주 최대 규모 … '칼라 스톤 특별 초대전 中'

무조건 반값 세일에 오픈 기념 2만 달러 상당 경품대잔치도 열려!

미주 최대 규모의 보석 전시장 및 도소매를 위한 판매장 등으로 이루어진 고베펄의 '윌셔보석마켓'이 어머니 날(Mother's Day)를 앞두고 지난 4월 17일 그랜드 오픈하면서 윌셔(Wilshire) 시대를 열었다.

엘에이 한인타운 중심가인 윌셔 길과 웨스트몰랜드 길 상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Bank of America) 건물 4층(#450)에 자리잡은 고베펄의 이 윌셔보석마켓은 각종 진주를 비롯해 에메랄드, 사파이어 등 칼라 스톤, 그리고 옥과 비취, 홍산호, 인공핵진주까지 총 2만여 점의 준보석을 비롯한 각종 보석이 전시장을 가득 채운다.

고베펄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진주 목걸이, 귀걸이, 반지, 브로치 등을 무조건 반값 할인 판매하며 어머니 날과 윌셔보석마켓 오픈 기념으로 2만 달러 상당의 화끈한 경품대잔치도 벌인다.

경품 1등 당첨자는 2명으로 각각 5,000달러 상당의 홍산호 비드 목걸이, 2등에도 역시 2명으로 각각 2,500달러 상당의 바로크 천연 비드 목걸이, 3등도 2명에게 각각 2,000달러 상당의 최상급의 두줄 원형 진주목걸이, 그리고 4등에게는 100달러 상당의 진주 브로치 10개 등 16명의 고객에게 총 2만 달러 상당의 경품이 주어진다. 그야말로 모처럼 고베펄사가 엘에이에서 쏘는 통 큰 경품 대잔치이다.

이와 함께 또 하나의 빅 이벤트로 진주 보석쇼에서 300달러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700달러 상당의 2줄 바로크 진주 목걸이를 선착순으로 30명에게 선물로 증정한다.

경품 추첨 발표는 오는 4월 29일 토요일 오후 4시 고베펄 윌셔 보석마켓에서 실시된다.

윌셔 길에 들어선 이 윌셔보석마켓은 3천 스퀘어피트 규모로 도소매뿐만 아니라 매달 한차례씩 한인 동포 여성들이 선호하는 각종 보석의 특별 초대전을 여는 등 보석 사업을 다양화, 다각화함으로서 엘에이 보석의 명가로 키워 나갈 방침이라고 고베펄사 관계자는 밝혔다.

고베펄은 특히 그랜드 오픈 기념으로 지난 17일부터 오는 29일까지 보름간 올해 대세 보석으로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칼라 스톤 특별 초대전을 개최 중인데 이 기간 동안 평일은 정상적인 영업을 하되 토요일은 오후 4시까지만 영업하고 일요일은 휴무이다.

고베펄의 윌셔보석마켓 그랜드 오픈 행사 일정은 다음과 같다.

1차: 2017년 4월 17일(월)-22일(토)
2차: 2017년 4월 24일(월)-29일(토)까지 2주간
장소: 고베펄 윌셔보석마켓 (뱅크 오브 아메리카 건물 4층)
주소: 3055 Wilshire Bl. #450 Los Angeles CA 90010 (윌셔와 웨스트몰랜드)
영업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까지(토요일은 오후 4시까지, 일요일은 휴무)
문의전화: 323-999-1558





2017 미주기독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총회장 김선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김시온 목사 T(213)407-4569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류종길 박사, 이사장 : 김광렬 목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imaster@gmail.com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CHONGSHIN UNIVERSITY THEOLOGICAL SEMINARY
캘리포니아주교육국(BPPE)인준 정식 학위 수여
수시입학(통신가능),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모집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에서 강도사 거쳐 목사 안수
모든 민족국제복음주의 총회에서 목사 안수
총장 : 이동규 박사 학장 : PASTOR YOUNG CHOI
978 S. Hoover St #201, LA, CA 90006
T.(213)386-0300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 (714)527-0691(0692) Fax :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 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온라인 쇼핑 비지니스
주부, 여자 유학생 환영
주 8~10시간 사용하여 엑스트라 수입을 창출
연락처 T(818)590-6078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Classified AD


중고차 황제 김기형

Family 자동차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 중고차 최고가 매입 $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한의사랑
한의사 Zo'e 조애
Tel:(213)718-8275
이제마 사상 체질 맥 30년 전문
체질맥, 장부맥, 병맥, 설진
심혈관 질환, 간질환, 중풍, 소화기문제, 내분비문제, 부인병, 고혈압, 당뇨, 부종, 알러지, 신장병, 각종통증, 갱년기, 생리통, 생리불순 (아들 원하시는 분)
2120 W.8th St. #208, LA, CA 90057(8th& Lake St.) (월수토 예약 필수)


2017 CD PRINTING
교회설교, 부흥회 시디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문의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패키지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160 (디자인 포함)
A형 스탠드배너
Stand X-Banner $65
Retractable Banner $140

시티보험 자회사 CA Lic. #0156071
실버시티보험
메디케어 올해 65세 되십니까?
메디케어 신규보험가입&변경기간 10월15일~12월7일
■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Part C) ■ 메디케어/메디칼 (변경기간 상관없음)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 메디커넥트 등 무료 상담해 드립니다.
무료상담 213-321-0302 Connie Kim(김 경미)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왕만두 (10개 $10)
팥찐빵
부추교자 (50개 $20)
김치교자
무료배달 ($40이상 주문시)
손으로 정성껏 만듭니다.
인하손만두 626.731.7864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S라인 8회 $999
•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각종 피부병과 아토피
•습진 화농성 여드름
✔ 손가락 ✔ 발가락 ✔ 마디관절 (류마티스 관절통증, 퇴행성 관절통증, 손톱, 발톱 질환)
*지독한 코골이 증상
• 치질(항문하혈, 통증) • 우울증
• 독소제거, 혈관 청소 • 관절염, 다리 쥐 오름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불임증 (자궁혹, 하혈) • 만성두통, 요통
• TMJ 턱관절 장애 *쉽게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약 취급합니다.
치아미백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3달분 $60
배 빼는 숙변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교통사고 전문 병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특별 이벤트
PRO-Z USA에서는 그동안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특별 이벤트를 실시하오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소중한 분들에게 선물하세요
한병 더
절호의 찬스
지금 구매하시면!
3병 +(1병 Free)
$267+Tax
*가까운 약국이나 건강식품점에서 구입하세요!
213.434.117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HIGH QUALITY 100% 천연성분
프로지 골드
PRO-Z GOLD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방송인 송해 선생님의 건강지킴이, 프로지골드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인슐린의 저항성을 낮추어 분비된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과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 이장렬 칼럼

회복의 복음 (요21:7-8)



이 장 렬 교수
미드웨스턴침례신학대학원
신약학

부활하신 주님을 이미 두 차례 대면한 제자들은 베드로의 주도로 고기잡이에 나선다. 밤새 수고했지만 다 허사다. 작은놈 하나 걸려들지 않는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세 번째로 만나주시려 이미 그들 곁에 와 계셨지만, 제자들은 그분을 인식하지 못한다. 호숫가에 서 있는 한 사람을 보았지만 그게 예수님이신 줄은 깨닫지 못한다.

고기잡이에 나선 제자들이 밤새 허탕만 쳤음을 아시는 주님은 대화를 통해 제자들이 철야노동에도 불구하고 작은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케 하시고 이윽고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명하시며 포획을 약속하신다. 제자들이 주님 말씀 따라 그물을 던졌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밤새 제자들과 숨바꼭질을 했던 디베랴 호수의 물고기들이 단숨에 그물에 걸려든다. 철야 작업 내내 단 한 마리도 건지지 못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이제는 한꺼번에 물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들어 그물을 들어 올릴 수조차 없다.

그제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인 요한이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고 이를 베드로에게 일러준다(21:7). 요한이 어떻게 바닷가에 서 있던 그분이 주님이심을 알아차릴 수 있었을까? 아마도 전에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누가복음 5:1-11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도 밤새 허탕을 친 뒤 주님의 도움으로 기적적 포획을 경험한 일이 있었다. 누가복음 5:1-11의 기사는 다른 제자들보다 베드로에게 더 집중하고 있지만, 그의 동업자 야고보와 저자 요한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고 함께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다(눅5:10-11).

사복음서를 통틀어 예수님의 개입으로 기적적 대량 포획을 이룬 사건은 단 두 번 등장한다. 첫 번째가 누가복음 5:1-11이고 두 번째는 바로 요한복음 21장이다! 처음 갈릴리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때와 거의 동일한 포획의 기적이 요한으로 하여금 해변에 서 있던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인식하게 했을 것이다.

바닷가에 서서 기적적 포획을 가능케 하신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는 요한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베드로는 작업 하느라 벗어두었던 겉옷을 얼른 두르고 허리띠를 졸라맨다. 고기잡이 작업을 위해 겉옷을 벗은 채 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겉옷을 둘러 주님에 대한 예의를 갖춘 후, 베드로는 주저 없이 물속으로 몸을 던진다. 겉옷을 갖춰 입고 헤엄치는 것이 불편하겠지만, 베드로에겐 예수님에 대한 예의가 편하고 불편하고의 문제보다 더욱 중요하다.

불과 육지로부터 100야드(91.44m) 가량 떨어진 가까운 지점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터라 다른 제자들처럼 배를 타고 와도 오래 걸리진 않으련만 베드로는 단 일초라도 주님을 빨리 뵙고자 하는 열망에 하던 일을 모두 중단하고 포획한 물고기도 다 뒤로 한 채 단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물속으로 몸을 던진다.

주님을 먼저 알아본 것은 요한이었는데, 정작 물에 몸을 던진 것은 베드로다. 어찌 보면 좀 과장된 듯한 베드로의 행동은 바다 위를 걷게 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칼을 마구 휘둘러 대제사장 종의 귀까지 잘랐던 그의 과단성과 특심을 여실히 드러내 준다.

진리를 좇지 않는 열심은 위험하다. 하지만 진리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삶과 사역에 대한 열정이라고는 잘 보이지 않는 경우를 자주 주변에서 경험하게 된다. 사실 나 자신이 그런 모습은 아닌지도 자문해 본다. 그 가운데 베드로의 과단성과 특심이 -비록 위험성을 적잖이 내포하고 있을지언정- 귀하게 느껴진다.

주님 계신 곳이라면 만사 제쳐 놓고 나아갈 수 있는 베드로의 열정이 과연 우리 가운데 살아 있는가? 혹시 주변에서 일초라도 주님을 먼저 뵙고자 물속으로 주저함 없이 몸을 던지는 베드로 같은 행동을 볼 때, 그것을 과장되고 형식적인 것으로 비판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비판을 통해 우리 안에 주님 향한 열정이 사라진 것을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따라 베드로의 "거룩한 낭비"가 그립다.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요21:7)"

〈계속〉

● '구약에서 길을 찾다' 에세이 공모전 대상작

이스라엘신학 정립의 필요성과 유용성에 관하여(4)



최 재 환 학생
게이트웨이신학교
M.Div. 과정

지난해 10월 기독일보가 주최하고 UBM교회가 주관해 열린 '구약에서 길을 찾다' 에세이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최재환 학생(게이트웨이신학교 M.Div.)의 글 〈이스라엘신학 정립의 필요성과 유용성에 관하여〉를 네 번에 걸쳐 연재합니다. - 편집자 주

결론

이스라엘의 역사는 오로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대하는 한에 있어서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신의 역사적인 실존을 유지했다.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수 있었으며 이스라엘의 구성원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공유하는 한에 있어서만 공동체의 삶에 연합하여 참여하였다. 이스라엘을 하나의 민족으로 만들어낸 출애굽과 광야에서의 인도 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실존을 획득하고 그들의 역사를 이어온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그로부터 멀어진다면, 그것은 그 존재의 토대를 잃어버리는 것이 된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더 이상의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할 수 없는 평범한 한 나라로서 변모한 것처럼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게 보였던 시간들은 하나님의 원 계획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했던 이스라엘의 또 다른 준비 기간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이방인의 때가 차고 있으며 닫혀져 있던 유대인들의 눈이 이제 조금씩 열려가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세계 교회들의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관심들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대체신학의 문제점이 드러나며 재고 여론이 조성되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국가적 독립으로 인해 영적 지형에 변화가 생겼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우주의 역사를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임재신학은 기독교의 성찬 임재신학으로 발전했다. 구약성서의 가르침에 기초한 기독교의 임재신학은 올바른 성서신학의 계승자로서의 제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다. 그리고 교회는 이스라엘의 복된 언약, 거룩한 토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고귀한 사명의 상속자로서 제 역할을 감당했다. 이제 이에 덧붙여서, 신앙의 본질, 즉 하나님이 계시하고 있는 그 본질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때가 되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스라엘신학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바라는 것은 결국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이 땅 위에 바르게 실현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만 강조되어 약속의 성취를 이루는 주장은 다소 위험하고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한다. 또한, 반대로 이스라엘이 아닌 교회로서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룬다는 주장도 올바른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과 교회 이 두 요소가 일원론으로서 하나의 성취를 위해 한 방향으로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스라엘은 신성한 제사장직으로의 복귀 및 역할로서 협력하고, 접붙인 가지인 기독교 공동체 즉, 교회는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협력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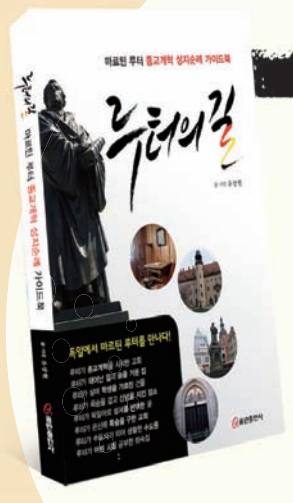
인간의 기나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의 특별한 파트너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약속하셨으며, 또 인도해 내셨다. 그리고 명령하셨으며 이스라엘에게 헌신하셨다.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삶은 기이하고 독특한 차별성이 존재함을 이제 우리는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본주의적인 정치 공동체의 힘이 지배하는 세상의 논리 속에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구별되어 다르게 살도록 기대되는 하나님의 임재가 지배하는 특별한 나라인 것이다.

이 특별한 나라 이스라엘에게 계시된 궁극적인 소망은 아마도 온 피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소망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이스라엘을 기다림 중에 남겨놓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그 기다림은 절망이나 고통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파트너로서의 이스라엘의 역할이 이제 곧 다시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니, 이미 시작되어 실행 중에 있는지도 모른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위한 샬롬의 삶,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기억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은 여전히 미래에 놓여있음을 기대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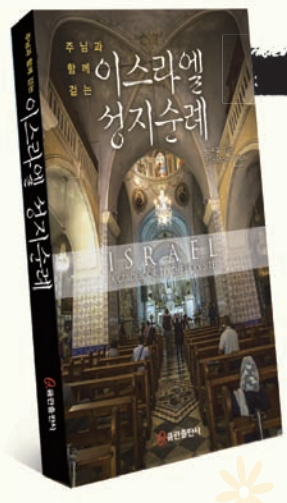
〈끝〉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성지순례 안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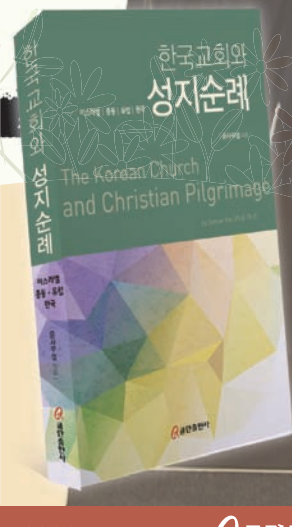
루터의 길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 성지순례 가이드북
루터는 '오직 성서'를 부르짖었다.
이것은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외침이기도 하다.
루터가 걸었던 그 특별한 길을 뒤따르는 당신에게
이 책은 길의 방향을 알려주고 길에 새겨진 발자국을 설명해주는
'안내자'가 되어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그 특별한 길에
남은 루터의 흔적을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순례자가 될 것이다.
유상현 지음 / 240면 / 15,000원



주님과 함께 걷는 <이스라엘 성지 순례>
필자는 오클라호마 대학 교수로서 미국 연방 항소법원 판사인
딸 루시고 판사와 함께 이스라엘 성지순례 자료와 사진을 정리하였고
단순한 여행기가 아닌 기독교 성지 연구와
생생한 역사가 담긴 현장을 컬러 사진으로 담고 있기에
성지 순례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탁은숙 지음 / 328면 / 20,000원



양화진 순례길
한국과 한국인을 사랑했던 이방인 순교자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며
여수 애양원에서 서울 양화진까지 27일 동안 680km를 걸었다.
혼자서 걸어간 그 길은 삶을 되돌아보는 깨우침의 시간이었고,
주님과의 동행을 경험하는 순간이었다.
기행문이자 선교사들의 사역 기록이기도 한 이 책은
스페인의 산티아고 가는 길과도 같은 한국의 순례길 여정을 담았다.
담양 지음 / 328면 / 20,000원



한국교회와 성지순례
성지순례는 학문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영적 재충전,
주님과의 사랑 회복, 치유의 은혜의 기회가 된다.
성경 말씀이 기록된 장소를 찾아가서 당시의 문화와
역사를 공부하고 그곳의 기후와 분위기를 직접 느끼면
성경을 이해하는 폭이 훨씬 넓어진다.
이스라엘, 중동, 유럽, 한국을 다니며 조사 연구한 것으로
성지순례에 대한 풍부한 자료가 실려 있다.
윤사무엘 지음 / 496면 / 19,000원

한글인터넷주소 쿰란, 쿰란출판사 홈페이지 www.qumran.co.kr 주소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6 ☎ 747-1004 쿰란출판사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북새통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잠언 8:10)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 도서

성경은 아이스크림처럼

케이스 페린 | 전의우 역 | 규장 | 188쪽



'사랑하는 자녀에게 맛있게 성경 먹이기'라는 부제처럼, 아이스크림처럼 달콤하고 게임보다 더 재미있게 성경을 읽어주는 9가지 원리를 소개한다. 저자는 자녀들이 성경을 읽게 하려면, 부모들이 먼저 성경과 사랑에 빠져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고 나서 자녀들 또는 교회학교 학생들과 성경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후 성경이 생생해지도록 도우라고 권면한다.

예수께서 선포하신 그 복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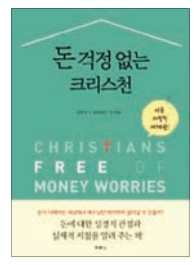
폴 워셔 | 황을호 역 | 생명의말씀사 | 88쪽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죄, 그로 인해 인간이 처한 심각한 곤경과 하나님께서 이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우리가 구원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할 복음의 주요 개념들을 간결하게 정리하고 있다. 더불어 우리의 회개와 신앙이 진짜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기점검' 항목을 넣었다. 이 책은 신앙생활에 필요한 지식들을 보기 쉽게 나열해 새신자 선물용으로도 적합하다.

돈 걱정 없는 크리스천

김의수, 데이비드 서 | 두란노 | 276쪽



돈과 믿음의 영적 전투에서 이기는 비결은 맘몬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돈에 대한 성경적 재정관을 바로 세우고, 주님이 맡기신 재정을 지혜롭게 다루는 실제적 지침을 알려준다. 자유롭게, 많건 적건 나누며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준다. 저자는 재무상담사로서 가정의 재정 시련을 가족과 함께 극복했다.

신뢰, 하나님을 누리는 최고의 길

토머스 해리 | 강미경 역 | 아가페북스



하나님을 누리는 최고의 삶은 우리의 '신뢰 근육'을 단련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는 것임을 이야기한다. '하나님의 품 속으로 담대하게 뛰어드는 것'을 믿음으로 정의하는 저자는, 그럴 때 비로소 참 자유와 행복을 만끽할 수 있음을 성경을 교과서 삼아 친절히 안내해 준다. 하나님은 충분히 신뢰할 만한 분임을 복음을 통해 조목조목 짚어준다.

구입문의
LA : 조이기독교백화점 T. (213)380-8793
LA : 기독교서적센타 T. (800)669-0451
OC : 생명의 말씀사 T. (714)530-2211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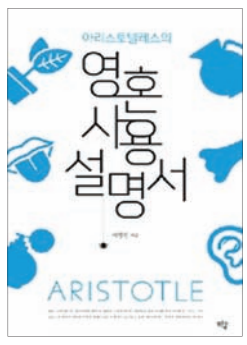
먹고 느끼고 움직이는 '영혼'에 관한 인문학적 통찰

이영진 교수는 '영화 읽어주는 책' 〈기호와 해석의 몽타주〉에 앞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고전 〈데 아니마〉를 읽어주는 책 〈영혼사용설명서〉를 펴낸 바 있다.

저자는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영혼을 일종의 '기능'으로 이해하고 영양섭취능력부터 감각능력, 운동능력과 욕구능력, 사고능력과 상상능력, 윤리능력의 근원으로 풀어낸 〈데 아니마〉의 주요 주장들을, 이 시대의 언어와 환경으로 재해석하고 있다. 그래서 제목도 '사용설명서'이다. 그리고 각각의 능력과 관련된 이원론과 유물론, 유심론과 일체론, 심리론과 뇌이론 등의 세계관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 교수의 최근 신간 두 권은 모두 '기독교 도서'로 분류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읽을 수 있다는 이야기로, 반대로 하면 둘 다 읽으면서 다소 거리낌 또는 거리감을 느낄 수 있다는 말도 된다. 일반은총에 기대 특별은총을 풀어냈다고도 할 수 있고, 신앙의 언어를 인문학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저자의 설명에 따르면 '영혼에 관하여'라는 의미의 〈데 아니마〉는 인간을 대상화하여 분리짓는 사조들의 시조(始祖)에 대항하기 위해 구성된 첫 문헌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인간의 자기 이해, 그 가운데 주로 인간의 형상에 관한 관조를 지닌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혼사용설명서
이영진 | 샘솟는기쁨 | 248쪽

텍스트들을 발췌해, 이 시대의 언어로 상호 간에 참된 이해와 해석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저자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형상을 분리해 이원화했던 스승 플라톤을 겨냥해 이 책을 전개한 듯한데, 이 책은 분명하게 살아 숨쉬는 우리 인간에 관해 가장 이상적인 해설을 담고 있는 고전"이라며 "신학적 의미로는 '성경이 충분하다'는 의미 속에 정지시켜 버린 하늘의 언어를 동시대 언어에 가져다 댐으로써 하나님의 언어로 복원시키려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를 통해 서구를 오랫동안 지배한 '이원론' 사상에 의해 해체당한 '영혼'의 진정한 형상을 회복하고자 한다.

근대부터 과학은 '영혼'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사실상 '없다'는 것을 전제로 발전해 왔다. 하지만 최근 뇌과학과 심리학 연구는 조금씩 다른 결과와 가정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혼'에 대한 인문학적 탐구 역시 필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신앙인으로서 "감히 이교도의 문헌으로 성서를 조망한 것"에 대해 저자는 "성서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기보다, 현존하는 수많은 훌륭한 역본들에 대해 그 뜻을 선명하게 하고 명확한 의미를 진작시키기 위한 조처였다고 자부한다"며 "비록 '영혼'에 관한 단편적 맥락에 국한된 논제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궁극적 호흡의 시작과 끝이기 때문에, 성서의 수많은 논제를 소급한다"고 강조했다.

이대웅 기자



창세기 1장의 새로운 해석
'물질적' 아닌 '기능적' 창조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물질 창조'는 사라지는 것인가?

성경을 그 시대의 문화로 읽고 조명하고 해석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 성경 속에 담겨 있는 그 의미와 사상을 깊이 파악하여 하나님의 지식과 목적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 기록되었을 당시의 역사적 사회적 상황과 문화적 요소가 분석되고, 문학적 구조(장르와 문법과 문체)까지 반영되는 것이다. 어휘 하나를 보더라도 그 시대 속에서 사용된 뜻을 파악해야 하고 문맥적인 위치와 공동체적 배경까지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문자적 해석은 창조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런 면에서 존 월튼의 업적은 우리로 하여금 수준 높은 창조해석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과 신비함을 더 알도록 인도한다.

그래서 필자는 이번에 나온 그의 책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이 책은 창세기의 배경이 되었던 메소포타미아와 가나안과 이집트 등 고대 근동의 배경과 우주론, 그리고 고대 근동의 인지환경과 신화들을 아주 다양하고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저자는 창조 기사에 대해, 이것은 물질적 창조가 아니라 '기능적 창조'라는 새로운 해석을 내놓는다. 당시 고대의 우주론은 기능적 서술이었다는 것을 수메르, 아카드, 길가메시, 에누마 엘리시 등 당시 문서들을 예를 들며 종합하여 설명한다.

또한 당시 사람들은 우주의 물질적 창조보다는 우주의 각 부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 창조 기사를 받는 이스라엘인들이 바로 이런 고대 근동 시대에 살았기에, 이런 배경 속에서 저자의 글을 이해하였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필자는 이 부분에 대한 그의 해석에 동의한다. 오랫동안 교회가 물질적 창조라고만 굳게 믿어왔는데, 고대 근동의 세계관과 당시 사람들의 우주론과 배경을 통해 기능에 초점이 맞추어진 해석이 더 설득적이고 타당해 보였고 성경적 의미를 더 풍성하게 하였다. 왜냐하면 이 창조 기사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일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을 포함한 고대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저자는 이런 기능적 창조를 잘 이해시키기 위해, 그의 다른 책인 〈창세기 1장의 잃어버린 세계〉에서 '회사'라는 비유를 사용한다. 건물만 완공이 되었다고 회사가 아니라,



창세기 1장과 고대 근동 우주론
존 H. 월튼 | 강성열 역
새물결플러스 | 372쪽

그 안에 부서가 나누어지고 사람들이 제 위치에 배치되어 고유한 업무를 할 때 회사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저자는 말하길 창조 기사는 성전으로서의 창조를 묘사한다고 주장한다. 이 또한 고대 근동의 자료를 비교하며, 근동에서는 우주 창조가 성전 창조의 의미였고 기능적 창조였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래서 창조 기사는 각 날마다 우주의 각 부분들을 정하고 제 역할을 하도록 기능과 질서를 부여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성전 낙성식이라 하여 하나님께서 성소에 좌정하셔서 실제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라고 한다. 필자는 이 부분에 있어, 창조가 물질이라면 과거로 끝날 약점이 있는데 기능이라고 해석하니 지금도 계속 창조(통치와 다스림과 안식)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지하는 더 풍성한 해석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필자는 그의 주장을 보며, 그러면 물질은 도대체 언제 창조되었냐는 질문이 생겼고 그 의심은 멈추지 않았다. 저자는 성경에서 물질적 창조는 중요하지 않게 다루고 있다 말하고, 그 어디에서도 그것의 정확한 기원은 알리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창조에 있어 이렇게 더 중요한 기능적인 것을 창조하셨다면, 물질적인 것을 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냐며 오히려 반문한다.

그러나 필자는 저자가 주장하는 기능적 창조는 받겠으나, 창조 기사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주장은 거부한다. 아무리 그의 주장이 통찰력이 있어도 계시에 대한 실재에 있어 물질을 부정하는 것은 성경의 권위와 연관이 되기 때문이고, 또한 인류의 시작이 기능과 함께 시작한다는 주장은 인간의 창조와 인류의 기원에 대해 풀리지 않는 미궁과 의심만 남겨 놓기 때문이다.

물론 창조 기사가 고대 근동의 세계관을 반영하여 설명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창조가 고대 이방의 우주론을 바탕으로 물질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 같았다. 실제 성경에서는 다른 신화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창조를 고백하고 있으며, 요한복음은 태초부터 그 주체가 되시는 말씀이신 그분이 함께하고 계셨다고 계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필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계적인 로봇처럼 하나님의 창조를 받아쓰게 하시지는 않았을 것이기에, 모세가 창세기를 쓸 때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등의 고대 근동 여러 자료와 신화들을 바탕으로 해서 창조기사를 장르에 맞게 작성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 창조 기사는 다른 신화와 근동 자료와 구분되듯, 모세가 그것들을 의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성경에서 모든 것의 기원이 되는 특별한 창조이기에 창조 기사가 장르는 따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계시해 주셨을 것이다.

또한 창조가 우주 성전의 창조이고 제7일 성전 낙성식에 대한 내용도 당시 세계관과 신화들을 통해 보면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는 해석이고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 즉위식에 대한 내용도 문서와 신화마다 다르고, 적과 원수를 상대로 하여 승리하고 이긴 자가 즉위하여 권위를 세울 수 있으니 이것을 성경의 창조기사와 동등하게 여겨 적용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생각되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절대자셨고 또한 즉위자로서 만물을 지배하고 계셨다고 성경전체가 계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창조기사를 기능이라고만 할 경우,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역사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연결하는 중요한 인물인 아담이 비역사적이고 허구적인 인물이 될 것이다. 물론 필자는 아담이 비역사적이라는 주장도 이해하고, 그것이 원죄와 구속에 있어 그리스도의 사역과 위대함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안다. 하지만 기능적 창조로 인해 그가 실제 인물이 아니었다고 할 경우, 우리의 정체성과 세계의 창조와 인류의 기원에 대해 성경보다 과학과 문화를 더 의존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이다.

방영민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성만찬
유월절의 성취와 새 출발

성만찬의 역사와 신학



성만찬의 신비를 풀다
브랜트 피트리 | 최현만 역
에클레시아북스 | 250쪽

본서가 탁월한 이유는 예수님의 성만찬에 대해 탄탄한 고대 유대교(출애굽기)에서부터 1세기 유대교(예수님께서 현존해 계시던 시대)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의 고대 그리스도교(사도시대-교부시대까지)에 대한 탄탄한 역사적, 신학적 자료들을 근거로 전개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본서는 예수님께서 유대교적 전통을 계속 이어가시지만 유대교적 전통에 지배를 받거나 제한되지 않으시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대교의 전통과 해석을 뒤집거나 초월 또는 확장하시면서 예언된 말씀들을 성취해 나가시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부분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종결점을 바로 유대교의 유월절 어린양의 제사가 예수님의 십자가 제물로 성취되고 완성되는 대목으로 묘사한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유대교의 성취이면서 또한 종결이며, 성만찬은 유월절 제사의 완성으로서 새 출애굽의 출발을 알리는 그리스도교로서 새로운 시작점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차분히 성경적으로 풀어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아론의 금송아지 숭배 이후로 나타난 레위 지파 중심의 제사장 제도(레위기) 외에 아론보다 이전의 제사장으로서 히브리서에서도 나타나듯이 '멜기세덱-다윗-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제사장의 또 다른 계보로 연결시킨다. 즉 성전의 종이었던 레위 계열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의 주인으로서, 레위 지파 중심의 제사장들이 아니라 유일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종결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계속해서 유월절의 양과 포도주, 성막과 성전 안에서 드려졌던 진설병과 포도주, 출애굽 후 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 1세기까지 지켜졌던 유대인들의 유월절 제의 방식과 순서 등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과 십자가를 향하고 있고,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출애굽으로서의 유월절 음식으로 구약의 유월절의 완성을 의미하고, 새로운 출애굽 의식으로서 행해져야 한다는 점은 매우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특별히 저자는 성소 안에 있던 떡상 위의 진설병과 포도주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주전 722년과 586년 벌어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기점으로 시작된 유대인들의 본격적인 메시아 대망 사상이 표출된 방식과 유대인들의 신학적 정신이 바로 유월절(출애굽) 제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집중하기 때문이라고 느껴진다.

그러나 저자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과 오늘날 우리의 성만찬의 떡에 집중한다. 그리고 이 떡은 '에피우시오스' 즉, 초자연적 떡이라는 것이다. 분명 저자는 '화체설'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노골적으로 '화체설'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로마가톨릭의 본심을 드러내고 있으며,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또한 포도주보다 떡에 더 집중하는 이유에서 우리는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본서의 성만찬이 '새 출애굽'에 근거한 '새 유월절'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 우리 그리스도교가 유대교가 아닌 유대-그리스도교적 성찬예식으로서, 유대교에 예속되거나 유대교와의 단절이 아닌 유월절의 성취와 새 출발이라는 새로운 관점은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강도헌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운영자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 우리들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 구입: 미주두란노와 기드온동족선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크오더명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Good Neighbors

이은수 목사와 함께 하는

굿네이버스 사랑나눔 찬양콘서트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찬양 예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4/9 (일), 11am	나눔과 섬김의 교회 (김종용 목사)
4/16 (일), 2pm	남가주새언약교회 (강양규 목사)
5/27 (토), 11am	할렐루야 한인교회 (송재호 목사)
6/23 (금), 7pm	갈보리 믿음교회 (강진웅 목사)

굿네이버스는 한국에서 설립되어 국내, 북한 및 해외에서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문적인 사회복지사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국제구호개발NGO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의 찬양사역자 이은수 목사가
전하는 이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이은수 목사

현 음악감독 및 찬양사역자(1987~) 지금까지 총 6,000여회 집회를 인도해옴
현 세미나 강사, 설교자, 작곡자, 예배인도자, 방송인(1987~)
현 LA 씨에라 호스피스 원목(2015~)
현 LA Shepherd University 교수(2015~)
현 굿네이버스 미국 나눔대사(2017~)

대표곡
'너는 내 아들이라', '야베스의 기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늘의 약속',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요', '포기하지 않으리', '믿음의 기도' 등 다수.

일정문의 (굿네이버스 미국법인): 877.499.9898 (한국어 2번)
Los Angeles Office: 3505 Cadillac Ave M201, Costa Mesa, CA 92626

Good Neighbors

A newspaper of reconciliation led by the Holy Spirit

CHRISTIANITY DAILY

SUBSCRIPTIONS:
Don't miss out on the news!
To subscribe,
please e-mail us at
christianitydaily@gmail.com.

Tel. 213-739-0403 | www.christianitydaily.com | THURSDAY, April 20, 2017 Vol. 97





Joint worship services took place in numerous regions throughout Southern California on Easter Sunday morning. Pictured are the services that took place in Pomona (left) and Walnut (right).

'Jesus Is Alive': Korean Churches Unite in Worship and Prayer for Easter

Joint worship services took place in about 10 locations throughout Southern California

Numerous Korean churches in various regions of Southern California gathered to worship and pray together during the early hours of Easter Sunday.

About 10 joint early morning worship services took place on Sunday, including in Los Angeles, Buena Park, Torrance, Walnut, Pomona, Granada Hills, Camarillo, Phelan, Lancaster, and San Diego, among other regions.

Most, if not all, of these joint services included a message on Easter, special singing or worship dance performances, and a time of prayer for the respective communities, for the nation, for the Korean peninsula, and for the next generation.

This year in particular, many of the services included a time of prayer for the upcoming presidential elections in South Korea, and for a stablization in the nation's political sphere.

"Christians should pursue change in their lives as they hold on to the hope of the resurrection – from a life that was centered on self, to one that is centered on God," Rev. Seung Hee Ko, the senior pastor of Beautiful Church in Rowland Heights, said during his sermon at the joint worship service which took place at Walnut.

At the Los Angeles joint service in particular, a council of churches released a statement in which the churches urged Christians to refrain from individualism, selfishness, materialism, inconsistency, polarization, legalism, and unethical decisions, among others, and called for repentance.

Those gathered at the Los Angeles service also prayed in particular for the immigrant community, and reconciliation among different ethnic groups.

Korean churches throughout Southern California have observed a tradition in gathering for joint worship services each year on the dawn of Easter, many of which are organized by church councils or associations.



Organizers of the upcoming gathering of Korean churches to observe the National Day of Prayer hosted a press conference explaining the details of the event.

Korean Church Community to Observe National Day of Prayer

BY JUNHYEONG KIM
TRANSLATED BY RACHAEL LEE

The Korean church community in Southern California will once again participate in the observance of the National Day of Prayer (NDOP). The day is a national observance that occurs the first Thursday of May each year, during which Christians in the U.S. pray for America and its leaders.

This year will be the 66th time the nation will be observing the day, and gatherings will be held under the theme, "For Your Great Name's Sake! Hear Us, Forgive Us, Heal Us!," based on the theme verse in Daniel 9:19, which reads in part: "O Lord, listen! O Lord, forgive! O Lord, hear and act! For Your sake, O my God..."

An estimated 47,000 gatherings will take place throughout the nation to observe the NDOP this year. The Korean church community will be gathering in the South Bay region at Junimseun Church on May 4 at 7:30 PM. The event will be hosted by Jesus Awakening Movement for America/All Nations (JAMA) and the South Bay Korean Pastors' Association. Organizations ministering to youth and young adults such as SOON Movement and HYM are also expected to participate.

Among the topics that will be prayed for in the Korean church community gathering include repentance and revival in America; families and schools; the church and culture; social justice; and for America's president and vice president, and other leaders in the nation including the military's leaders, Supreme Court justices and judges across the nation, members of Congress, leaders in the education field, police officers, firefighters, and politicians.

The NDOP is meant to be observed as a day of prayer for the U.S., but the Korean church gathering will also include a time of prayer for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upcoming presidential elections in South Korea.

Leaders in the first generation Korean community, as well as second generation Korean American community, will be leading prayers at the gathering, as well as leaders of organizations that focus on ministering to youth and young adults. Korean American elected officials and educators will also lead prayers.

JAMA expressed hopes that Korean American Christians not only in Southern California but also all over the nation would participate in observing the day of prayer, and distributed resources about the day of prayer to some 100 churches across the U.S.

Oregon Church Celebrates Easter with Members of the Greater Community

Korean Bethel Presbyterian Church, located in Aloha, Oregon, launched a special ministry on April 15, the day before Easter.

The congregation celebrated Easter not only within the church walls, but also invited members of the community to rejoice in the resurrection of Jesus together. A diverse group of community members gathered at the church parking lot for the celebration.

It was the first time the church attempted such an event, but organizers found that the food they prepared for 250 people fell short.

The event featured various activities and programs, including taekwondo demonstrations, traditional Korean dances and instrument performances, worship dances, an egg hunt, and face painting, among others.

Among those who came to the event included the elderly, those with disabilities, and military servicemen, as well as people from various ethnic backgrounds, such as Latino, Filipino, and Iranian individuals. Many of those who attended were able to hear the gospel.

"Even though we're all Americans living in this place, we weren't able to have an event like this before because there was no pivotal leader," said one attendee, thanking the church for hosting the event.

"It was a rewarding experience being able to do something that the church should definitely do for the greater community," said one of the church members.



Korean Bethel Presbyterian Church, located in Aloha, Oregon, hosted a community gathering on the day before Easter with food and activities.

Why Do Churchgoers Stick Around? It's the Sermon Content, Says Poll

The major factor that keeps most churchgoers in church is not how welcome they feel, nor how awesome the worship band is, according to a new Gallup poll released on Friday. It's the content of the sermons.

The poll, conducted on Americans who attend a religious service at a church, synagogue, or mosque at least monthly, found that the top two factors that participants said were "major" in why they attend their houses of worship were both about the sermons — whether they teach about scripture, and whether the sermons allow the listener to connect their faith to their lives.

More than three-quarters (76 percent) of survey participants said "sermons or talks that teach you more about scripture" were a major factor, while 75 percent said the same about "sermons or lectures that help you connect religion to your own life." A larger majority of Protestants in particular said sermons were major factors, as 83 percent said that sermons that teach scripture were a major factor, and 80 percent said the same for sermons that help to connect their faith to their lives.

The two choices on sermons topped the list, beating out other factors such as "spiritual programs geared toward children and teenagers" (68 percent), "community outreach and volunteer opportunities" (61 percent), "social activities that allow you to get to know people in your community" (49 percent), and "a good choir, praise band, cantors, or other spiritual music" (38 percent).

More than half (54 percent) said that "dynamic religious leaders who are interesting and inspiring" was a major factor, ranking it fifth among the seven factors.

"While social benefits are clearly important to majorities of those who worship regularly, what most motivates them to attend is learning more about the tenets of their faith, as well as connecting that faith to their lives," Gallup noted.

Local Churches and Ministries

Christianity Daily
A ministry through journalism
For questions about advertising and donations
T.(213)739-0403 F.(213)402-5136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30 AM & 11:30 AM
Sunday School: 11:30 AM
College Group Meetings: Fridays at 6 PM
Pastor Sung Chang
Charis Mission Church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www.charis.church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2:45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Supreme Court Hears Arguments on Church-State Separation Case

High court weighs whether church preschool should be eligible to receive state grants to resurface its playground with safer material

The U.S. Supreme Court heard oral arguments on Wednesday regarding whether a Lutheran church in Missouri should be allowed to participate in a state-funded program that uses recycled synthetic rubber to resurface playgrounds.

Trinity Lutheran Church, located in Columbia, MO, operates a preschool, and applied to the state's grant program to replace its playground's gravel with the softer and safer synthetic rubber.

However, though the church ranked fifth out of 44 applicants, it said, it was denied the grant due to a Missouri law that prohibits state money from being used "in aid of any church, sect, or denomination of religion."

"We aren't asking for special treatment," Annette Kiehne, director of Trinity's child learning center, said. "We are just asking to not be treated worse than everyone else. Whether you are a Jewish, Muslim, or Christian kid, or not religious at all, when you fall down on a playground, it hurts just as much at a religious preschool as it does at a non-religious one."

Many of the Supreme Court justices' questions and remarks implicated a favor leaning towards the church, including those from the liberal-leaning justices.

"Essentially this is a program open to everyone," Justice Elena Kagan told James Layton, a lawyer representing Missouri. "You're depriving one set of actors from being able to compete in the same way everybody else can compete, because of their religious identification."

Justice Samuel Alito said that barring the church from such programs could also prevent it from receiving funding to protect the child care center from violence or terrorist attacks.

Justice Stephen Breyer seemed to agree.

"If it [Missouri] does not permit a law that pays money out of the treasury for the health of the children in the church, school, or even going to church, how does it permit Missouri to deny money to the same place for helping children not fall in the playground, cut their knees, get tetanus, break a leg, etc?" Breyer asked. "What's the difference?"



The U.S. Supreme Court heard oral arguments on April 19 on whether a church's child care center should be eligible for a state grant program to resurface its playground. (Photo: Marie/Flickr/CC)

Two liberal justices — Justices Ruth Ginsburg and Sonia Sotomayor — seemed most staunchly on the side of the state.

Ginsburg pointed to a 1947 case heard by the Supreme Court in which, she said, "This court said in no uncertain terms that what the framer didn't want was tax money imposed to pay for building or maintaining churches or church property. And doesn't that fit this case?"

David Cortman of Alliance Defending Freedom, representing Trinity, responded, "I think there's a difference between funding of religious activities and funding secular activities of a religious organization," saying that in the same case, the court also said religious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should have access to general government benefits.

But Justice Sotomayor noted that there were many cases in which states refused to fund churches, and that ruling against the church in this case wouldn't impede it from practicing its religion.

"I'm not sure it's a 'free exercise' question," Justice Sonia Sotomayor said. "No one is asking the church to change its beliefs. The state is just saying it doesn't want to be involved in giving money to the church."

Meanwhile, Missouri Governor Eric Greitens actually reversed the law last week, and said that the state was wrong to deny such funding to religious organizations.

However, both parties involved in the case urged the Supreme Court to still rule, saying that Greitens' reversal could easily be again reversed by a future governor.

The Supreme Court is expected to rule on the case by June.

Three Years Since Kidnapping, Parents of Missing Chibok Girls Continue to Pray

April 14 marked the third year since 276 school girls were kidnapped by Boko Haram. Since then, many girls have escaped or been rescued, yet 195 still remain missing.

The girls were kidnapped when the extremist group attacked the Government Girls Secondary School, located in Chibok, on April 14, 2014. Since then, 57 escaped, several were found by locals or army soldiers, and 21 were released by Boko Haram following negotiations with the Nigerian government.

A series of events, including lectures and rallies, took place last week in remembrance of the missing girls.

Some 100 parents of the missing girls gathered at the school —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kidnapping incident — for a multi-faith prayer event, praying for the girls' return, according to a CNN report.

"Only a few parents got their daughters back," Yana Galang, a mother whose three daughters are still missing, told CNN. "Over 100, including myself and my husband, are still groaning for ... those who were not found."

Though the government has published statements on numerous occasions saying that it is continuing negotiations to secure the girls' release, parents have expressed to media a waning trust in the authorities.

"It seems that we cannot count on the government," Yakubu Nkeki Maina, a parent of an 18-year-old who remains missing, told the World Watch Monitor. "We look up to God, Who is able to come to our rescue."

Since the girls were kidnapped, a group called 'Bring Back Our Girls' — which has been organizing the events last week — has been actively campaigning for their release, bringing the issue to the attention of the international public. The group has been using the hashtag, #BringBackOurGirls, on social media, and public figures such as Michelle Obama have used the slogan to bring about a greater awareness.

ISIS Attacks Christian Monastery in Egy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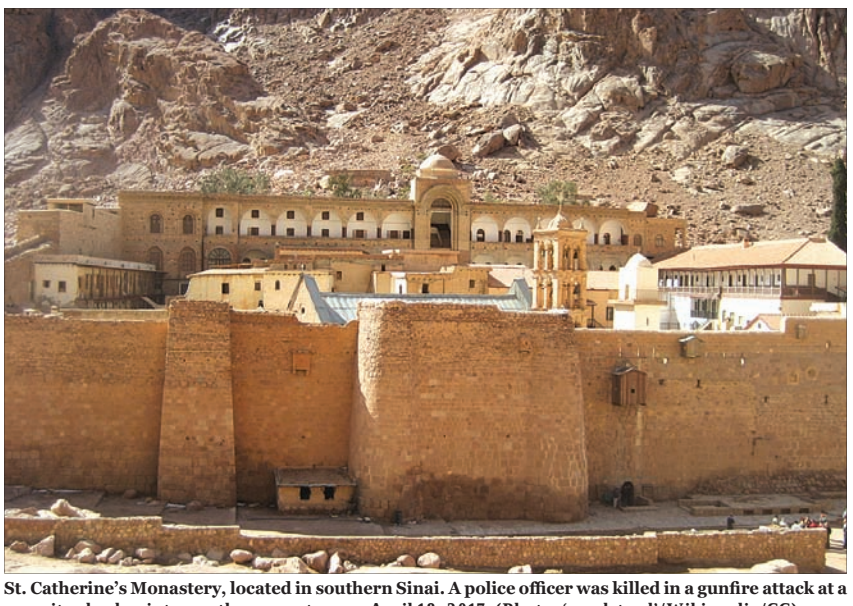
At least one killed in gunfire attack at security checkpoint near St. Catherine's Monastery

At least one police officer was killed and four more were injured in a gunfire attack that occurred on Tuesday at a security checkpoint located near St. Catherine's Monastery in southern Sinai.

The Islamic State (ISIS) claimed responsibility for the attack through Amaq, a news agency that is known to be asssociated with the extremist group.

St. Catherine's Monastery, which was established in the 6th century, i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Christian landmarks in the region. It is a UNESCO world heritage site, and is known to have contained ancient Bible texts and manuscripts. Thousands of tourists visit the site each year to not only see the landmark itself, but also to hike up further to visit a site which contains a tree that is traditionally said to be related to the burning bush that Moses had witnessed.

The attack comes just over a week after two Coptic churches were bombed on Palm Sunday, killing 47, the deadliest incident experienced by the Christian community in Egypt in decades. Since the Palm Sunday attack, Egypt's President Abdel-Fattah el-Sissi declared a three-month-long state of emergency in the nation.



St. Catherine's Monastery, located in southern Sinai. A police officer was killed in a gunfire attack at a security checkpoint near the monastery on April 18, 2017. (Photo: 'ccarlstead'/Wikimedia/CC)

It also comes a little more than one week before a visit from the Pope, who was set to attend an international peace conference.

The Islamic State has been increasingly targeting Christians in the country over recent months, and reports say that the extremist group's attacks in general have become more and more sophisticated.

About 10 percent of Egypt's population identify as Christian.

According to a Reuters report, Egyptian security forces found and killed a gunman suspected of carrying out the attack on Wednesday.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Sunday Services: 11:30 AM
Pastor Henry Lee
Crossroads Church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www.crclafgc.com

Brea Campus Service Times: 9:30 AM, 11:30 AM
Irvine Campus Service Time: 10:30 AM
Pastor Steve Choi
Crossway Community Church
Brea: 695 Madison Way, Brea, CA 92821
Irvine: 100 Honors, Irvine, CA 92620
T. (714) 529-5551 / crossway-church.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g Adults): 7:30 PM
Pastor James Kwa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 gsch.org

Sunday Services: 1:30 PM
Children's Ministry: 11 AM
Friday Worship: 7:30 PM
Dawn Prayers: 5:30 AM Tu~F; 6:30 AM Sat.
Pastor Won Lee
Gospel First Korean Baptist Church
8132 Garden Grove Bl., Garden Grove, CA 92844
T. (714) 799-5673 / email : 8132gospelchurch@gamil.com

Sunday Services: 9 AM & 11 AM
Bible Studies: Wednesdays at 7 PM
Prayer Meetings: Tuesdays at 11 AM, Saturdays at 9 AM
Pastor Sam Koh
Hillside Church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909-9062 / www.hillsidela.org

Sunday Services: 1:45 PM
Pastor Mitchell Perez
The Home Church
19100 E. Killian Avenu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384-1393 / thehomechurchrowland.com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d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Sunday Services: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Sunday Services: 9 AM & 11 AM
College Group Meetings:
Sundays at 12:30 PM, Fridays at 8 PM
Pastor Steve Chang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1215 W. Lambert Road, Brea, CA 92821
T. (562) 694-2100 / www.livinghopecc.org

Sunday Services:
8:30 AM, 9:45 AM & 11:15 AM
Pastor Paul Kim
Redeemer Presbyterian Church
1831 South El Camino Real Encinitas, CA 92024
T. (760) 753-2535 / www.redeemersd.org

Sunday Services: 1 PM
Youth Group Services:
Sundays at 11 PM, Thursdays at 7 PM
Pastor Daniel Han
Restore Fellowship
2525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 / www.ladongsan.com

Broadway Campus Sunday Services:
9:45 AM, 11:15 AM, 12:45 PM
Jefferson Campus Sunday Services:
9:30 AM, 11:30 AM
Pastor Michael Lee
Young Nak Celebration Church
Broadway: 1721 North Broadway, LA, CA 90031
Jefferson: 150 W. Jefferson Blvd., LA, CA 90007
T. (323) 227-1414 / www. ynccla.org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 11:25~26)

J&L JEONG & LIKENS, L.C.
www.jeonglikens.com

Practicing Excellence with Winning Strategy

- 다수의 대형 로펌 상대 소송 승소
- 미주류 대형기업을 상대로한 다수의 승소 경험
  1) 미국 소프트웨어 대기업이 제기한 지적재산권 소송 **성공적 방어**
  2) 대형 언론사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 **성공적 방어**
  3) 미 대형 군수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승소**
  4) 대형 부동산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승소**
  5) 전문 변호사들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건설 관련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6) 10년이 지난 전문가 업무상 과실 사건, 공소시효문제 해결하여 **승소**
- 수임 거부된 소송, 전문 변호사들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불리한 소송 이례적 승소로 해결
- 지적 재산권, 부동산, 채권추심, 건설, 노동법 등 관련 다수의 상법 소송 승소
- 중소기업중앙회, 한인의류협회, 한인부동산협회 및 다수의 기업에 고문변호사로 활동



정찬용

Loyola Law School, J.D.
Senior Articles Editor,
Loyola International & Comparative Law Review
Published an artcle on Antitrust Law, Loyola International & Comparative Law Review
Won 2006 Annual Writing Competition,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Law & Management

상법/민사
- 물품/서비스 거래 계약 위반
- 채권/채무/파산 관련 소송
- 프랜차이즈 관련 소송
- 비즈니스 파트너 간 소송
- Non-profit 협회 관련 소송
- 장애자법(ADA) 관련 소송
- 비즈니스 관련 보험사 상대 소송

지적재산권
- 디자인 등 저작권 등록
- 의류 관련 저작권 침해 소송
- 영화, 음악, 방송 관련 저작권 소송
- 상표권 등록 관련 소송
- 상표권 침해 관련 소송

노동법
- 고용계약서/직원핸드북 작성
- 오버타임 등 노동법 관련 소송
- 차별, 보복 행위 관련 소송
- 부당해고 관련 소송

부동산/건설
- 부동산 매매/에스크로 관련 분쟁
- 비즈니스 매매 관련 소송
- 커머셜 리스 관련 분쟁
- 은행과 커머셜론 관련 분쟁
- 건설 관련 분쟁
- Mechanics lien/stop notice 관련 소송







JEONG & LIKENS는 상법, 민사, 지적재산권, 노동법, 부동산, 건설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함께합니다.



1055 W. 7th Street, Suite 2280, Los Angeles, CA 90017
Tel. 213.688.2001